

『구구소한도(九九消寒圖)』의 성격과 의미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소장 구구소한도 목판을 중심으로-

장장식* · 정부용**

<차 례>

1. 머리말
2. 『구구소한도』의 개념과 성격
3.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소장본 『구구소한도』의 내용
4. 마무리

<국문초록>

동지로부터 9일을 단위로 하여 9번 반복되어 봄이 온다는 뜻을 가진 구구소한도는 시간을 9일 단위로 셈하는 북방의 민속에서 비롯되었다. 이른바 수구(數九) 풍속인데, 19에서 시작하여 99로 마무리된다. 이를 반영한 노래가 구구가(九九歌), 구구소한가(九九消寒歌)이다. 구구가는 민간주도로 하북, 절강, 북경 등 여러 지역에서 당송 이전에 이미 유행되었고, 지역에 따라 생태환경과 기후에 따라 노랫말의 내용이 바뀐다. 구구가의 구조와 내용 면에서 북방 유목민의 수리 체계와 기상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방민속에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구가는 명청대를 거치면서 화구(畫九)와 사구(寫九) 풍속으로 발전하여 구구소한도(九九消寒圖)를 낳는다. 구구소한도는 화구 방식의 매화 구구소한도와 도표 구구소한도 및 사구 방식의 문자 구구소한도로 나뉜다. 이외는 달리 다양한 시문학적인 형태로 확장한다. 이외에도 도판의 형식을 변화시켜 다채로운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다.

구구소한도는 절기와 역법, 지리와 사물에 대한 정신감정을 융합한 민속지식

*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 가천대학교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자유전공학과 교수

(folk-knowledge)의 시각적 문화매체이다. 비록 호사적인 유희에서 출발했지만 분명한 것은 태양력에 기반한 동지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수리법에 의한 계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구소한도는 시간학의 역일(曆日) 관점에서 수행된 시간풍속이자 세시민속이고, 자연의 물후와 기상을 담아내고자 한 기상민속이다. 세시적인 주술성과 유희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실제의 경험과 해석을 통해 기후를 예측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점복 행위로 대응된다. 구구소한도는 이런 차원에서 운용되었고, 이를 위해서 판화를 제작하고 다량의 인출본을 만들어 유통되었다. 구구소한도가 상업적으로 유통되었다는 것은 동지 민속으로서의 연화(年畵)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인간의 원망(願望)을 달성하고자 하는 행위론적 측면에서 운용된 구구소한도는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향유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궁중에서 민간까지 두루 공유한 세시풍속의 하나로 존재했고, 일부이지만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시간 개념과 기상 측면의 복합적 민속 지식을 구현하고 있는 ‘화신평(花信風)’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차후의 비교 과제로 남긴다.

□ 구구가, 구구소한도, 99, 매화 구구소한도, 도표 구구소한도, 문자 구구소한도, 목판, 동지 민속

1. 머리말

『구구소한도(九九消寒圖)』는 구구(九九) 수리(數理) 체계를 바탕으로 궁중과 민간인들 사이에 유통되고 향유한 호사적 취향을 반영하고 스스로 날마다 완성해 가는 일력(日曆)의 하나이다. 구구소한도의 ‘구구’는 동지로부터 시작된 추위가 9일씩 9번 반복되고 마침내 봄이 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북방의 구구수리체계와 기상현상이 반영된 중국의 민요 구구가(九九歌), 구구소한가(九九消寒歌)로부터 성립되었다. 이 구구소한도는 매화·도표방식의 화구(畵九)와 문자 즉 사구(寫九)방식으로 발전

하며 행해진다. 또한 시문학적 형태, 그리고 다수의 일반서민들의 취향에 맞게 도판을 자유롭게 변형한 구구소한도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구구소한도」는 북방으로부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전승된 유서 깊은 풍속으로 다양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즉 자연변화에 맞춘 경험과 지식의 총체가 담긴 세시풍속이고 또 세시풍속으로서의 놀이 그리고 주술행위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문학적 성격까지 지닌 남녀노소, 학식의 유무, 신분·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즐기고 행한 풍속으로서 민속학적 차원에서 그 가치를 규명하는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선행연구의 성과와 자료를 바탕으로 「구구소한도」의 개념과 유래, 유희 방법과 성격을 고찰하고 명주사 고관화박물관¹⁾이 소장·전시하고 있는 「구구소한도」 목판²⁾의 내용을 분석·파악하여 「구구소한도」의 성격과 의미를 추정하고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명주사 고관화박물관 소장하고 있는 「구구소한도」 목판은 다량 인출이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염두에 둔 연화(年畫)나 세화(歲畫)³⁾의 한 종류로서의 실증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목판이라는 형태’의 자료로 「구구소한도」의 가치를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논하려 하는 본고는 기존 연구에 성과를 더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
- 1)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1706-1 치악산 매봉자락에 소재한 사립박물관이다. 동양의 옛 판화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2003년에 개관하였다.
 - 2) 목판은 55.5×53×3cm이다. 양면의 목판을 각각 印出하여 합치면 한 장(120×70cm)의 구구소한도가 완성된다. 국립민속박물관·명주사 고관화박물관, 『인쇄문화의 꽃, 고관화』, 2015, 74~75쪽.
 - 3) 세화와 연화는 세시풍속과 관련된 그림을 가리킨다. 중국의 연화는 정초와 단오에 붙였고, 우리나라의 세화는 정초와 입춘과 단오에 붙였다. 둘은 벽사와 길상을 염원하는 門排의 세시풍속이라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cf. 김용권, 「세화와 연화의 차이점 연구」, 『현대미술연구소 논문집』 9권, 경희대학교 현대미술연구소, 2008, 36~50쪽; 김용권, 「조선시대 세화의 시원 연구」, 『동양예술』 12호, 한국동양예술학회, 2007, 100~146쪽.

『구구소한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매우 미비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두 편의 논문과 한 편의 소개 글을 찾을 수 있다. 박세욱(2004)은 ① 섬서성(陝西省) 서안비림박물관의 구구소한도비(九九消寒圖碑)에 보이는 청양자(淸陽子)가 쓴 ‘구구소한도’(1488년)와, ② 돈황에서 발견된 뽀리오4017 문1서에 보이는 ‘영구구시일수(詠九九詩一首)’를 비교한 바 있다. 이를 통하여 구구가의 풍속이 ‘서북 지역 민족의 풍습이 당나라 말기에 전해져 행해진 것’으로 추정하고, 이러한 풍습은 이미 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비정하였다.⁴⁾

이와는 달리 우실하(2003)는 그림 형식의 『구구소한도』와 글씨 형식의 『구구소한도』 및 구구소한도를 읊은 칠언율시의 구구소한도시를 비교하여 구구가는 북방 유목문화의 ‘3수 분화의 세계관’에서 발생하여 중국에 전해진 것이고, 발생 시기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기록으로 볼 때 한대 이전으로 보았다.⁵⁾ 구구소한도의 개념이 북방 유목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우실하의 주장에 논자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에 앞서 몽골의 ‘구구 추위(θ γ , 99 81의 추위)⁶⁾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한 바 있다.⁷⁾ 장장식(2002)이 논의한 대강은 다음과 같다.

몽골 유목민은 겨울 추위가 양력 12월 22일 동지부터 81일 동안 계속된다

-
- 4) 박세욱, 「돈황본 詠九九詩와 구구소한도 연구」, 『중국어문학』 제43호, 영남중국어문학회, 2004, 103~104쪽.
- 5) 우실하, 「구구가, 구구소한도의 기원과 ‘3수 분화의 세계관’」, 『동양사회사상』 제13집, 2006, 372~376쪽.
- 6) . γ , , 2000, .110~111. 이 사전에서는 첫째 9일부터 아홉째 9일까지의 추위와 변화상을 표현하고 있다.
- 7) 장장식, 「아홉을 아홉 번을 넘어야 하는 몽골의 겨울」, 『몽골민속기행』, 자우출판, 2002, 285~290쪽.

는 산술적인 계산을 하는데, 9일씩 아홉 번의 추위가 이어진다는 99추위의 개념이다. 하나의 추위는 9일간 지속되는데, 첫 구일(九日)을 시작으로 점차 추위의 강도를 높여 넷째 구일을 정점으로 하고 다섯째 구일에서부터 꺾이어 아홉째 구일로 가서 추위가 소멸되고 마침내 겨울을 마감한다. 이를 숫자로 표현하면 $9 \times 9 = 81$ 이니, 81일이 곧 몽골의 겨울이라는 것이다.

논자는 위의 글을 쓰던 당시(2001)에 중국의 『구구소한도』 풍속을 몰랐기에 몽골의 ‘구구추위’를 소개하고, 3, 9, 81의 숫자 상징에 집중하여 3을 ‘길수(吉數), 특별한 숫자’로 여기는 유목민의 숫자 관념에서 비롯되어 9를 ‘하늘의 수’로, 81을 ‘완전한 수, 가장 큰 수’로 간주하는 수리개념을 반영한 것으로만 해석하였다.

이상희(2002)는 『구구소한도』가 중국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 유입된 풍습으로 주로 선비들 사이에서 유행된 독특한 일력(日曆)의 하나이고, 봄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낭만적인 풍속이라 소개하였다.⁸⁾ 아울러 문인들이 좋아하던 흰 매화를 그려놓고 매일 한 장씩 붉은 빛깔로 칠을 해서 홍매화로 만들어나가는 방법과 ‘정전수양진중대춘풍(庭前垂楊珍重待春風)’이라는 9획을 가진 9자의 시구를 써붙여 놓고 매일 한 획씩 먹으로 메워서 81일째는 전구순(句)을 완성시키는 형태가 있다고 소개하였다.⁹⁾

중국의 경우에도 『구구소한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보다는 민속자료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구구소한도의 유래에 대해 소방기(蕭芳麒, 2008), 수결(隨杰, 2008), 반평(潘萍, 2001)과 같은 중국 학자들은 문천상(文天祥) 고사를 우선적으로 들고 있다. “상흥(祥興) 원

8) 이상희, 『매화』, 넥서스Books, 2002, 173쪽.

9) 이상희, 『매화』, 넥서스Books, 2002, 174쪽.

년(1278) 12월 20일에 남송의 문천상이 원 쿠빌라이에게 붙잡혀 북경에 압송되어 갇혀 있을 때 구구소한도를 만들었고, 그가 죽은 후에 널리 알려졌다.”¹⁰⁾는 것이다. 전설적 담론이기에 크게 신뢰할 수는 없으나 구구소한도를 둘러싼 역사적 인식을 유추할 수 있는 글이다.

명대의 유약우(劉若愚)가 지은 『명궁사(明宮史)』 『화집(火集)』에 ‘구구소한시도(九九消寒詩圖)’가 언급되어 있다.¹¹⁾ 사례감(司禮監)에서 이를 인쇄하고 궁중 내외에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¹²⁾ ‘일구 첫 추위는 겨울이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문장을 시작으로 ‘일월성진이 끊임없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끝난다. 이로 보아 명대에는 궁중 주도의 「구구소한도」 풍속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청대 역시 마찬가지이나 명대보다는 매우 적극적인 편이다. 이송령(李松齡, 1986)은 “도광(1821~1850) 초년에 황제께서 ‘구구소한도’를 만들었는데, ‘정전수류진중대춘풍(亭前垂柳珍重待春風)’이라는 9획을 지닌 9개 글자를 사용했다.”는 청대의 사례들과 그림을 언급하였다.¹³⁾ 다른 사례보다 주목되는 것은 ‘황제께서 구구소한도를 만들었다’는 기록이다. 아마도 구구소한도에 대한 궁중의 애호가 컸던 것을 반영하는 표현이 아닌가 한다. 이 외에도 중국 제일역사당안기록관(第一歷史檔案記錄館)이 소장하고 있는 청대의 ‘구구소한시도’를 들 수 있다. 이는 모양과 형식이 구구소한도와 비슷하다. 각 구(九)마다 4구의 구(句)로 구성된 총 36구로

10) 蕭芳麒, 『九九消寒圖的來歷』, 『對聯(民間對聯故事)』, 2008년 제1기, 15쪽; 隨杰, 『冬至與九九消寒圖』, 『河北畫報』 2008년 제12기, 36~37쪽; 潘萍, 『九九消寒圖碑與民俗中的九九消寒』, 『碑林集刊』, 2001, 208~209쪽.

11) 陳新, 『“九九消寒圖”探源』, 『閱讀與寫作』, 2006년 제5기, 32쪽.

12) 明 劉若愚의 『각중지(酌中志)』에도 “冬至后, 室內多挂『綿羊引子』畫帖, 司禮監刷印九九消寒圖.”라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당시에 이미 풍습으로 자리잡은 듯하다. 隨杰, 『冬至與九九消寒圖』, 『河北畫報』, 2008년 12기, 35쪽.

13) 李松齡, 『漫話‘九九消寒圖’』, 『文史知識』, 1986년 제57기, 64쪽.

이루어진 시이고, 시의 내용으로 상고시대의 ‘삼황치세(三皇治世)’를 시작으로 ‘대청좌금란(大清坐金鸞)’¹⁴⁾까지 발생한 중요한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다.¹⁵⁾

이와 같은 민속에 대해 『제경경물략(帝京景物略)』과 『연경세시기(燕京歲時記)』는 간략한 기술이지만 당대에 행해진 민속의 대략적인 모습을 잘 알려주고 있다. 『제경경물략』은 동지에 흰 매화 한 가지를 그리고, 꽃잎 81엽을 그린 다음, 날마다 꽃잎을 1개씩 칠하는 방식과 함께 19부터 99까지를 노래한 「구구가」를 소개하고 있다.¹⁶⁾ 『연경세시기』 역시 소한도의 개념과 그림을 채워가는 방식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¹⁷⁾

이 밖에도 『제경세시기승(帝京歲時記勝)』과 『흙정일하구문고(欽定日下舊聞考)』 풍속 조에서도 구구소한도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¹⁸⁾ 『제경세시기승』은 “9개의 꽃잎을 매단 9가지의 매화에 날마다 꽃잎을 칠해나가는 방식”과 함께 그림 옆에 적은 연구(聯句) 1수¹⁹⁾를 소개하고 있다.²⁰⁾ 『흙정일하구문고』 역시 이와 동일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창문에 구구도를 그려본다. 추운 날이 끝나고 따뜻해진다. 매화의 꽃잎을 창문에 가득 그렸다. 밖에 보니 살구꽃이 펴 있다.²¹⁾

14) 金鸞은 북경의 자금성을 말한다. 청나라가 개국하여 북경을 수도로 삼았다는 뜻이다.

15) 李松齡, 『漫話 ‘九九消寒圖’』, 『文史知識』, 1986년 제57기, 64~65쪽.

16) 국립민속박물관, 『제경경물략』, 『중국대세시기』 II, 2006, 102쪽.

17) 국립민속박물관, 『연경세시기』, 『중국대세시기』 II, 2006, 380쪽.

18) 于敏中·英廉 등撰, 『欽定日下舊聞考』 清 卷一百四十八 『風俗』條.

19) “그림 속의 검고 검은 매화를 보게나. 자연히 문 밖의 풀은 푸르고 푸르리라(試看圖中梅黑黑 自然門外草青青).”

20) 국립민속박물관, 『제경세시기승(帝京歲時記勝)』, 『중국대세시기』 II, 2006, 217쪽.

21) 李松齡, 『漫話 ‘九九消寒圖’』, 『文史知識』, 1986년 제57기, 63~64쪽.

우리나라의 경우, 몇몇의 문집에 『구구소한도』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여 일찍부터 관심을 보였으나 역사의는 달리 그다지 유행되지는 않은 것 같다. 김흥락(金興洛, 1827~1899)은 『퇴계선생문집고증(退溪先生文集攷證)』을 회교할 때, 이황의 시 『아회화운(阿灰花韻)』에 『제경경물략』의 기록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주를 넣었다.

『제경경물략』에 동지에 흰 매화 한 가지를 그리는데, 81엽의 꽃잎이 달려 있다. 날마다 하나의 꽃잎을 그리고 다 그리면 99가 된다. 이를 구구소한도라 한다.²²⁾

신위(申緯)는 절구 네 수를 읊으면서 구구소한도를 첫 수로 내세우고 있고,²³⁾ 김정희는 ‘사람에게 주대[與人]’라는 글에서 구구소한을 언급하고 있다.²⁴⁾ 그러나 실제의 운용 사례나 완상한 일화를 찾을 수 없다. 이로 보아 18세기 말까지 『구구소한도』의 민속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예컨대 서유문(徐有聞)이 1799년 중국에 갔을 때, 온돌방 벽 위에 걸린 『구구소한도』를 목격하고 그림의 뜻을 묻는 장면이 나온다. 문답의 내용으로 보아 제목이 지닌 뜻은 한자를 풀어 짐작했으되 그림 전체의 뜻이나 유래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22) 『退溪先生文集攷證』 卷之三, 제5권시, 阿灰花韻(註); “(帝京景物略)冬至畫素梅一枝。爲瓣八十有一。日染一瓣。瓣盡而九九出。曰九九消寒圖。”

23) 신위(1769~1845), 『警修堂全藁冊』 11, 花徑瞻墨八, 內集 四絕句(사절구 중 첫수); “殘生傷性奈如何。婉變關情慰實多。九九消寒圖遺興。梅花漸減杏花加。”

24) 김정희(1786~1856), 『완당전집』 제5권, 서독(書牘), 사람에게 주대[與人]; “다만 동떨어진 객관에 외로이 앉았자니 정사(情思)가 쓸쓸할 것은 형세로 보아 그럴 듯도 하나 그대로 하여금 잠두(蠶頭) 아래 제일(第一)의 집에 있어 절각당(折脚鐺) 가의 골쭉화(槽榨火, 모닥불) 앞에서 구구소한(九九銷寒)의 모임을 마련한다면 이는 또 어떤 경지라 하겠는가.” 이 내용으로 볼 때, 추사가 구구소한의 모임을 한 것 같지 않고, 다만 구구소한도의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짐작된다.

온돌방 벽 위에 한 장 그림을 붙였으며, 분(盆)에 두어 가지 매화를 심은 것이요, 위에 ‘九九消寒圖’ 다섯 자를 썼으니, 구구는 구구 팔십일을 이름이요, 소한도는 찬 것이 사라지는 그림이란 말이다. 그림의 뜻을 물으니……(후략)²⁵⁾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와 문헌자료를 볼 때, 『구구소한도』는 12세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전승문화이지만 여전히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고 문화사적 배경과 발생, 지역적 전승양상 및 민속적 의미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필요한 연구 영역임이 분명하다.

2. 『구구소한도』의 개념과 성격

1) 구구소한도의 개념과 유래

『구구소한도』는 기본적으로 겨울철의 추위를 셈하는 방식이다. 동짓날 또는 동지 이튿날부터 9일씩을 하나의 단위로 묶고, 이를 9번 반복하여 마친다. 총 81일이 경과해야만 추위가 물러가고 봄이 온다는 개념으로 쓰였다. 각각의 9일을 순차적으로 이름하여 두구(頭九)인 19(一九)부터 29(二九), ……., 89(八九), 99(九九)까지 셈해 가는데²⁶⁾, 이를 통칭하여 ‘구구(九九)’라 한다. 마치 셈법 구구단의 ‘ $1 \times 9 = 9$, $2 \times 9 = 18$, ……., $8 \times 9 = 72$, $9 \times 9 = 81$ ’과 같은 9단처럼 셈을 하는 방식이되, 19, 29, ……., 89, 99로 이름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동지’는 태양력에 근거한 절기이며, 의미상으

25) 서유문(1762~1822), 『무오연행록』(寫年 미상) 제6권, 기미년(1799, 정조 23) 2월 13일. 북경의 아문을 출발하여 귀국하던 길에 환향하(還鄉河)의 한 집에 머물렀을 때의 견문이다.

26) 이를 각각 ‘첫 추위, 둘째 추위, ……., 아홉째 추위’라 한다. 장장식, 『아홉을 아홉 번을 넘어야 하는 몽골의 겨울』, 『몽골민속기행』, 자우출판, 2002, 287~290쪽.

로 일양시생(一陽始生)하는 특정 시점이다. 구구소한도는 이런 점에서 전통 역서에 입각하여 운용되는 시간 민속이다.

소한(消寒, 銷寒)은 ‘추위를 견뎌 이겨낸다.’는 뜻이니, ‘구구소한’이라 하는 것은 9일의 추위가 9번 반복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추위를 이겨낸다 [消寒]는 의미를 갖는다.²⁷⁾ 여기에 ‘그림’을 뜻하는 圖를 붙여 구구소한도라 한 것은 99를 표시해 가는 일종의 그림이나 도판(圖版)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행위론적 측면에서 볼 때, 『구구소한도』는 특정 기간(동지로부터 봄까지 81일 동안)의 날씨를 관측하는 행위에서 나날의 날씨를 기표하는 과정과 기표된 결과를 대상으로 한해 농사의 풍흉을 따지는 예측활동까지 계기적으로 수행된 민속이다.

『구구소한도』는 달리 ‘구구소한표(九九消寒表)’ 또는 ‘구구소한화(九九消寒畫)’라 부른다. ‘구구소한표’는 특정 양식의 도표를 만들어 운용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구구소한화’는 매화 그림을 그려서 운용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를 줄여서 소한도(消寒圖) 또는 구구소한도(九九銷寒圖)라 한다. 모두들 의미의 차이가 크지 않은 동의용어들이다.

이와 같은 『구구소한도』는 중국의 민속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몇몇의 호사가들이 즐겼지만 그다지 일반화되지 않았다. 『구구소한도』와 관련하여 전승되는 중국의 민요가 『구구가(九九歌)』이다. 이는 그림의 형태가 아닌 언어유희적인 형태로 전승되는 노랫말인데, 구구소한도 발생의 기초적인 셈법과 의미를 충실하게 담고 있다. 구구가는 동지부터 경칩과 춘분 사이까지의 겨울추위를 읊을 때에는 ‘동구구가(冬九九歌)’라 하고, 하지부터 백로와 춘분 사이까지의 여름더위를 읊을 때

27) 이 글을 발표할 때 지정 토론을 한 김일권(한국학중앙연구원)은 소한(消寒)의 의미를 ‘추위가 점점 커지고 줄어든다’는 음양곡률적인 소장(消長) 측면에서 풀이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늑이다’의 뜻을 지닌 銷寒의 용례를 고려할 때,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나 이 논문에서는 반영하지 못했다.

에는 하구구가(夏九九歌)라 한다. 그러나 ‘구구가’라 하면 보통 동구구가
를 가리킨다.

9일을 한 단위로 하여 9번 반복되는 수구(數九) 방식이 언제부터 시작
되었는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전당시(全唐詩)』 권559 설능(薛能)
의 『한묘기우회양춘정유배(漢廟祈雨回陽春亭有杯)』에 실린 언급²⁸⁾과
남송 석보제(釋普濟)의 『오정회원(五燈會元)』에 기록된 “일구와 이구에
는 서로 만나도 손을 내놓지 않네(一九與二九, 相逢不出手).”는 구구소
한의 관념이 당송대에 이미 있었음을 보여주고, 이를 근거로 할 때 구구
소한도가 민간의 민속으로 자리잡은 것은 남송대(南宋代)인 듯하다.²⁹⁾
이처럼 『구구소한도』가 12세기 이전부터의 역사를 가진 전승문화이지만
중국을 제외하고는 몽골과 우리나라에서는 자료가 많지 않다.

2) 『구구소한도』의 유희 방법과 성격

본 항목에서는 『구구소한도』를 그리거나 채워가는 유희 방법을 소개하
고, 이것이 지닌 세시풍속상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구구소한도』를 그
리거나 채워가는 운용 방식을 굳이 ‘유희 방법’이라 함은 『구구소한도』를
행위화하는 저변에는 언어놀이와 세시놀이와 같은 유희성이 강하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동지로부터 봄을 맞는 세시풍속의 일환인 주
술성을 기반으로 전개된 전략적 세시의례의 행위로 보고자 함이다.

(1) 『구구소한도』의 유희 방법

『구구소한도』는 달리 ‘구구소한표’ 또는 ‘구구소한화(九九消寒畫)’라

28) “九九已從南至盡, 芊芊初傍北籬新”; 潘萍, 『九九消寒圖碑與民俗中的九九消寒』, 『碑林集刊』, 2001, 208쪽.

29) 潘萍, 『九九消寒圖碑與民俗中的九九消寒』, 『碑林集刊』, 2001, 208쪽.

부른다. 표(表)나 화(畵)라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인 99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니, 『구구소한도』와 크게 다를 바가 전혀 없다. 그림 옆이나 상단에 한시 구절을 적기도 하는데, 이를 구구소한구(九九消寒句)라고 한다.

『구구소한도』는 기본적으로 동지 전날에 그림을 붙이고 동짓날이나 동지 이튿날부터 시작하여 경칩과 춘분 사이의 81일까지를 표시해 나가는 방법이다. 특정 그림(圖 또는 畵) 위에나 표(表) 안에 하루 단위로 그려나가거나 채워가는 방식을 취한다.

이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매화 그림을 81송이나 81개의 꽃잎을 그려놓고 날마다 이를 하나씩 채워가는 그림 방식이다. 둘째, 가로세로 각각 9개씩 총 81개의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바둑판 모양의 격자무늬나 방격方格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나날의 날씨를 기록해 나가는 기표 방식이다. 셋째, 9획을 가진 9글자를 미리 써놓고 하루에 한 획씩 채워나가는 글씨 방식이다. 어떤 형태를 쓰던 간에 하루를 지시하는 지표를 기본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81(9×9)일의 총체를 구현한다. 첫째와 둘째는 그림을 그려 나간다는 뜻에서 화구(畵九)라 하고, 셋째는 글자를 써 나간다는 뜻에서 사구(寫九)라 한다. 구구가와 같이 시로 읊을 때에는 수구(數九)라 한다. 자세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³⁰⁾

첫째, 매화 그림의 구구소한도이다.³¹⁾ 화구(畵九)라 불리는 방식인데, 이는 1개의 가지에 아홉 송이의 매화가 달린 9개 가지를 그려놓거나(총81

30) 구구소한도에 쓰인 도판에 따라 운용방식이 달라지며, 도판을 기준으로 ‘梅花九九소한도, 圓圈九九소한도, 文字九九소한도’로 나눈다. 李露露, 『中國節-圖說民間傳統節日』, 福建人民出版社, 2005, 196~197쪽; 谷萬里, 『冬至習俗:九九消寒圖』, 『中華養生保健』, 2010년 12期, 19쪽.

31) 논자 역시 李露露(2005)와 谷萬里(2010)의 용어를 따라 ‘매화 구구소한도’ 또는 ‘매화소한도’라 부른다. 이하 같다.

송이), 9잎이 달린 매화꽃 9송이³²⁾를 그려놓고, 동짓날 또는 동지 이튿날부터 흰 매화 한 송이씩이나 한 잎을 칠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 양식과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유물로 서안비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구구소한도비(九九消寒圖碑)’를 들 수 있다. 이 비석은 높이 102cm, 폭 43cm의 장방형이고, 명대 홍치 원년(1488)에 세운 것이니 유물적 가치가 매우 크다. 비신 상단에 ‘九九消寒之圖’ 여섯 글자를 해서로 새겼고, 제목 밑에는 9폭의 도화(圖畫)와 19에서 99까지를 넣었다. 비신 중앙에는 매화도와 경하도(慶賀圖)를 담았고, 하단에는 청양자의 발문(16행 196자)을 새겼다. 매화 구구소한도와 구구가 등이 합쳐진 형태로서 매화 구구소한도로서는 매우 빼어난 작품이다. 이 비문 양식의 구구소한도에 실린 구구가는 ‘북방 풍광의 계절 변화의 특징과 상관한 민속문화’를 반영하고 있다.³³⁾

매화 구구소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제경경물략』을 보기로 들어 구구소한도의 개략을 살핀다.

동지가 되면 흰 매화 한 가지를 그리고, 꽃잎 81개를 그린 다음, 날마다 꽃잎을 1개씩 칠한다. 꽃잎을 모두 칠하면 81일이 지나 봄이 깊어지니, 이를 ‘구구소한도’라고 한다. 9개의 꽃송이를 그리고 꽃송이마다 9개의 둥근 꽃잎을 만들고 이를 새겨서 판매하는데, ‘구구가’를 붙여 춥고 따뜻한 날씨를 헤아려 노래하기도 한다.³⁴⁾

『연경세시기』도 이를 소개했는데, 『제경경물략』 11월조의 기록을 그대

32) 매화꽃은 실제로 다섯 잎을 가진 꽃이다. 그러나 구구소한도에서는 아홉 잎을 그린 다. 실상과는 다른 묘사인데, 이것은 자연현상을 몰라서가 아니라 매화를 그리는 자체가 이미 실제와는 거리가 먼 환상적인 상정의 영역으로 들어갔음을 뜻한다.

33) 潘萍, 『九九消寒圖碑與民俗中的九九消寒』, 『碑林集刊』, 2001, 207~208쪽.

34) 국립민속박물관, 『제경경물략』, 『중국대세시기Ⅱ』, 2006, 102쪽.

로 따온 내용이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제경경물략』을 살펴 보건대, 동짓날 집집마다 흰 매화 한 가지를 그려 꽃잎 81개를 만든 다음 날마다 꽃잎을 1개씩 칠한다. 81개의 꽃잎이 모두 칠하면 봄이 깊어진 때이다. 그래서 ‘구구소한도九九消寒圖’라고 한다.

매화 구구소한도는 소재 측면에서 매화꽃을 활용하고 있고, 하루에 한 송이의 꽃을 칠하느냐 한 잎의 꽃잎을 칠하느냐의 차이를 보일 뿐 81을 채워가는 방식과 수리체계는 같다. 아마도 꽃잎을 채워나가는 방식은 작지만 양증맞은 멋을 부릴 수 있을 것이고, 꽃송이를 채워가는 방식은 우람한 매화를 완성함으로써 완매(玩梅), 상매(賞梅), 관매(觀梅)의 경지가 지 이를 것 같다. 굳이 우리나라의 회화를 예로 든다면, 조희룡의 『매화서옥도』(간송미술관 소장), 고담 전기의 『매화초옥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김명국의 『탐매도(探梅圖)』(국립중앙박물관 소장)처럼 관매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일찍부터 매화는 한겨울 추위 속에 피어나는 세한삼우(歲寒三友)의 하나로서 간주되고, 눈길을 뚫으며 탐매하는 문사들의 풍류와 아취(雅趣)를 즐기는 주요 소재로 쓰였다. 매화 구구소한도를 통해 ‘매화를 그려가며 관매한다’는 것은, 일별(日別, 1일부터 9일까지)과 단계별(19부터 99까지)로 매화를 생육시키면서 과정과 결과를 완상하는 행위이다. 이는 동지 전후에 분에서 키워 매화를 피우고 이를 완상하는 ‘납전상매(臘前賞梅)’³⁵⁾의 상징성과 상통한다. 실제 행위는 아니지만 관매행(觀梅行)의 이상을 실내에서 완상, 와유(臥遊)하고, 이를 통해 화류놀이의 대의를 실천하는 고취(高趣)의 양상과 상통한다.

35) 서유구, 『임원경제지』 『이운지(怡雲志)』 권8, ‘節辰賞樂’조

둘째, 도표 양식의 구구소한도이다. 이 역시 화구(畫九)의 방식 중 하나인데, 종이 위에 9개의 칸을 그리고, 각 칸 안에 9개씩 작은 원(圓)을 그려 도합 81개로 구성된 도판을 채워 나가는 기표 방식이다.³⁶⁾ 중국 학자 이로로(李露露)의 분류 방식에 따르면 원권(圓圈) 구구소한도인데, 눈자는 어의상 ‘도표 구구소한도’ 또는 ‘도표소한도’로 부른다.

‘칸’의 모양은 당일의 날씨를 적을 수 있도록 다섯 칸으로 세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원을 다섯 칸으로 구획한 모양이 마치 엽전처럼 생겼다 하여 화동전(畫銅錢)³⁷⁾ 또는 동전(銅錢) 기록법³⁸⁾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처음으로 소개한 기록은 『연경세시기』이다.

소한도는 9격(九格)에 81권(圈)이다. 동지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1권씩 칠하는데, 위는 흐림이요 아래는 맑음이고, 왼쪽은 바람이요 오른쪽은 비이며, 눈은 바로 가운데이다.³⁹⁾

날씨의 상황에 따라 다섯 구역으로 분할된 권(圈)을 채워 가는 방식인데,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 칸에 나날의 일기에 상응하는 특정 칸을 기표하는 방식을 취한다. 원 내부를 상반(上半)과 하반(下半), 좌반(左半)과 우반(右半) 및 중앙으로 구획하고, 흐린 날에는 원 내부의 상반을, 맑은 날에는 하반을, 바람 부는 날에는 왼쪽을, 비가 오는 날에는 오른쪽을, 눈이 오는 날에는 한가운데를 색칠한다는 것이다.⁴⁰⁾ 이런 방식은 유희의

36) 谷萬里, 『冬至習俗:九九消寒圖』, 『中華養生保健』, 2010년 12期, 19쪽.

37) <http://www.epochtimes.com/b5/14/12/26/n4327438.htm>: “畫縱橫九欄格子，每格中間再畫錢形，共得八十一錢，冬至進入數九寒天九九消寒圖蘊藏智慧.”

38) 王揚, 『中華美術民俗』, 中華人民大學出版社, 1996, 218~219쪽.

39) 국립민속박물관, 『연경세시기』, 『중국대세시기』 II, 2006, 380쪽; “消寒圖乃九格八十一圈 自冬至起 日塗一圈 上陰下青 左風右雨 雪當中.”

과정이나 완성을 한 후 전체상을 통해 겨울철 특정 기간의 날씨를 조망할 수 있고 이후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그만큼 봄을 기다리는 염원을 담은 의지를 읽을 수 있는 행위의 지표 구실을 한다.

방향성에 따른 이와 같은 기표 외에도 권 내부를 다양한 색깔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완안좌현(完顏左賢)은 『강희유속일사식물고(康熙遺俗軼事飾物考)』라는 책에서 색깔을 이용한 표기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날씨가 맑으면 빨간색으로, 흐리면 파란색으로, 비가 오면 녹색으로, 바람이 부르면 황색으로, 눈이 오면 공백으로 그리지 않으나 때로는 연백 분으로 그린다.”⁴¹⁾고 했다. 단순히 상하좌우 점을 찍는 것보다 번거로운 일이지만 기후에 따른 색깔 표기는 결과적으로 미적 색채감을 드러낸 방식이다.

도표 구구소한도의 역사적 유물 사례로 신해혁명(辛亥革命) 후에 제작된 『소한익기가(消寒益氣歌)』(길이 39.1cm, 폭 28cm)를 들 수 있다.⁴²⁾ 이는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푸이(愛新覺羅 溥儀, 1906~1967)를 위하여 신하들이 지은 것인데, 제목이 ‘추위를 없애고 기운을 더하는 노래’이지만 방식은 일반적인 구구소한도와 같다. 화면을 井자형으로 9등분하여 ‘일구에서 구구’까지의 노래 이름⁴³⁾과 관련 가사(歌詞)⁴⁴⁾를 배치하고, 각각의

40) 圓圈 내부를 구획하여 기표하는 방식 때문에 민간에서는 ‘点九圖’라 부른다. 날씨 상황을 표기하는 방향도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의는 같다. 흐린 날에는 下点을, 맑은 날은 上点을, 바람 부는 날은 左点을, 안개가 이는 날에는 右点을, 눈이 온 날은 中点을 찍는다. 李松齡, 『冬至數九話消寒』, 『北京檔案』, 2013년 11기, 8쪽.

41) “晴涂紅色, 陰藍色, 雨涂綠色, 風涂黃色, 雪可以空白不涂, 或填鉛粉。” cf. 李松齡, 『冬至數九話消寒』, 『北京檔案』, 2013년 11기, 9쪽.

42) 溥連仲, 『九九消寒圖』, 『紫禁城』, 1982년 제5기, 31쪽.; 李松齡, 『溥儀與九九消寒圖』, 『紫禁城』, 1987년 3기, 44쪽.

43) 노래명은 ‘七星拱一圖, 左右和合圖, 三星在戶圖, 四平八穩圖, 一門五福圖, 六合得正圖, 寄財子祿圖, 八方朝貢圖, 九五至尊圖’ 등이다. 李松齡, 『溥儀與九九消寒圖』, 『紫禁城』, 1987년 3기, 44쪽.

칸에 9개의 원(○)을 특정 모양(八卦爻象圖)으로 배열하여 나날의 일기를 기록할 수 있게 하였다.⁴⁵⁾ 소한익기기에 기록된 기간은 1922년 12월 22일부터 1923년 3월 12일까지이니, 자료로서는 매우 최근의 것이다. 또 매구每句에 상응하는 절영(節令) 기후와 종교적인 염원과 함께 ‘온 세상이 대청으로 돌아온다(九州復大清)’는 정치적인 의지와 이상을 담고 있다.⁴⁶⁾ 이는 도표 구구소한도와 구구가를 결합하여 발전시킨 형태로 보이며, 나름의 민속전통을 적극 활용한 궁중문화의 한 모습을 엿보게 한다.

셋째, 문자 그림의 구구소한도이다. ‘사구(寫九)’라 불리는 방식인데, 이는 9획을 가진 글자 아홉 글자를 미리 써놓고 하루에 한 획씩 채워나가는 방식이다. 글자는 마치 윤곽선으로 형태를 그려내는 구륵법(鉤勒法)처럼⁴⁷⁾ 글자 테두리를 윤곽선으로 그렸고, 획수의 내부를 빈칸으로 남겼다. 이로로의 분류 방식에 따르면, 문자 구구소한도 또는 문자소한도이다. 글자의 내부를 채워가는[填字] ‘글자’를 강조하되 매화 소한도의 방식과 견준다면 구구소한구(九九消寒句)임이 분명하다.⁴⁸⁾

44) “其歌詞內容，除按每九順序配有相應描述節令气候的詞句外，在一定程度上反映了溥儀的思想，不僅有宗教迷信色彩，還做着“九洲夏大清”的夏辟美夢。”；李松齡，『冬至數九話消寒』，『北京檔案』，2013년 11기，10쪽.

45) 李松齡，『冬至數九話消寒』，『北京檔案』，2013년 제11기，9~10쪽. “這張『消寒益氣歌』，每九的九個圈構成的圖案與這九歌名相合。例如：左右合和圖，左右各四圈，底部用一圈聯合起來。三星在戶圖，則是三圈在中，其餘六圈構成門戶之門字形。八方朝貢圖，八個圈分布四周與中心圈相連。另外，與其他消寒圖不同的是，有的在這一天的圈內，竟記有三種符號，記錄了是日天氣變化的夏雜情況。”

46) 李松齡，『冬至數九話消寒』，『北京檔案』，2013년 11기，10쪽.

47) 이를 중국에서는 쌍성폭(鉤成幅)이라 하며, ‘글자의 테두리만 긋고 속은 비게 하는 필’을 말한다. 글자를 모사한 후, 후에 그 글자의 빈 속을 색을 입히는 방법이다. cf. 李松齡，『冬至數九話消寒』，『北京檔案』2013년 11기，7쪽.

48) 戴鳳春，『數九與九九消寒圖』，『海內與海外』，2006년 12기，61쪽.

가장 보편적으로 쓴 글자는 “정자 앞에 드리워진 버드나무 간절히 봄바람을 기다리네.”라는 뜻을 지닌 “亭前垂柳珍重待春風”이다. 이 아홉 글자는 모두 9획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자이니, 하루에 한 획씩 그어 나가는 유희의 근거인 ‘놀이터’이다. 이에 대한 기록으로 앞에서 인용한 청대의 『양길재총록(養吉齋叢錄)』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는 문자 구구소한도가 청대에 비롯되었음을 논증하는 증거가 된다.

도광(1821~1850) 초년에 어제(御製)의 구구소한도가 있는데, ‘亭前垂柳珍重待春風’라는 9글자를 썼으며, 매 글자는 9획이다. 무근전(懋勤殿)에 굵은 붓으로써 작품을 써놓았다. ‘관성춘만(管城春滿)⁴⁹⁾이라는 주제를 지었다. 제신들은 날마다 빈칸을 채워 음청우설(陰晴雨雪)의 날씨를 자세히 각주로 추가하고 빈칸에는 글자로 채웠다.⁵⁰⁾

이는 청대의 궁중에서 행한 구구소한도에 대한 설명이다. 뜻은 소한(消寒)과 영춘(迎春)에 있고, 동지 전날에 궁중 내에 이를 걸고 매일의 날씨를 기록했다. 주로 주홍색 붓으로써 당일에 해당하는 한 획수를 쓴 후에 흰색 세필로 당일의 획 위에 당일의 날씨를 적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당일의 날씨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되 일구의 첫날에 바람이 불었을 경우, ‘亭’ 자의 첫 번째 획수에 ‘바람’이라 적는다. 또 둘째 날이 맑고 따듯하고 바람이 불었을 경우, ‘亭’ 자의 두번째 획수에 ‘맑음, 따듯하고 바람이 있는 날’이라 적는다. 마찬가지로 셋째 날의 날씨에 따라 세 번째 획수에 ‘맑

49) 管城은 붓의 별칭이고, 管城春滿의 뜻은 筆下生春이다.

50) 李松齡, 『漫話 ‘九九消寒圖’』, 『文史知識』, 1986년 제57기, 64쪽.; 陳新, 『“九九消寒圖”探源』, 『閱讀與寫作』, 2006년 제5기, 32쪽. cf. 潘萍은 청대 徐珂의 『清稗類鈔』 『時令類』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이를 九九消寒句라 했다. 潘萍, 『九九消寒圖碑與民俗中的九九消寒』, 『碑林集刊』, 2001, 209쪽.

고 따뜻한 날, 네 번째 획수에 ‘아침, 맑다가 밤이 되어 흐린 날씨가 됨’, 다섯 번째 획수에 ‘맑고 따뜻한 날’ 등을 적었다. 결과적으로 하루하루의 기록이 얼마나 상세한가에 따라 당일에 쓰는 날씨 내용의 길이가 정해지는 방식이다.⁵¹⁾ 때로는 ‘만수무강(萬壽無疆)’, ‘필묵을 낭비하여 오늘은 쉼(浪費筆墨今日休)’과 같은 기후와 무관한 내용을 적기도 했다.⁵²⁾ 당일의 기후 정황을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후와 관련이 없는 것을 적었다는 것은 문자 소한도가 지닌 자유로움과 운영의 분방함에 해당할 것이다.

다른 유형의 문자로 “봄에 앞서 뜰 앞의 측백나무가 향기를 날리니 방안에 가득 차네.”라는 뜻을 지닌 “春前庭柏送風香盈室”이 있다. 이 역시 모두 9획을 가진 아홉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⁵³⁾ 유희 방법은 앞의 것과 같이 날마다 한 획을 긋고 획수마다 우설풍청(雨雪風晴)의 날씨 상황을 직관적인 그림으로써 표시하였다. 글씨 위에는 ‘관성춘만(管城春滿)’의 네 글자를 써서⁵⁴⁾ ‘온 집안에 봄이 가득 찬다.’고 비유했다.

이 밖에 “기러기는 남쪽으로 날아가고, 버들강아지는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의 “雁南飛哉柳芽待春來”를 쓰기도 하고,⁵⁵⁾ “기러기는 남쪽으로 날아가고, 버들강아지는 더욱 무성하니 봄이로다.”라는 뜻의 “雁南飛柳芽茂便是春”⁵⁶⁾이나 “향내 나는 차를 가지고 와 뜰 앞에서 손님을

51) 李松齡, 『漫話 ‘九九消寒圖’』, 『文史知識』, 1986년 제57기, 64쪽.

52) 李松齡, 『冬至數九話消寒』, 『北京檔案』, 2013년 11기, 8쪽.

53) 李松齡, 『漫話 ‘九九小寒圖’』, 『文史知識』, 1986년 제57기, 64쪽.

54) 한유가 지은 『모영전(毛穎傳)』에서는 “붓을 관으로 봉한다. ‘관성자’는 호가 된다.”고 했다. ‘관성자’라는 것이 붓의 별칭이고 글씨 쓰기가 끝나면 온 집에 봄경이 가득하게 된다고 비유한 것이다. 李松齡, 『漫話 ‘九九小寒圖’』, 『文史知識』, 1986년 제57기, 64쪽.

55) 李松齡, 『漫話 ‘九九小寒圖’』, 『文史知識』, 1986년 제57기, 64~65쪽. 중국 第一歷史檔案記錄館이 소장하고 있는 청대의 ‘구구소한시도’에 등장하는 문구이다. 구구소한시는 일구부터 구구까지 읊었고 각 九마다 4句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雁南飛哉柳芽待春來”의 9자가 둘러싸고 있다.

기다린다.”는 뜻의 “香保送茶來廳前待客”⁵⁷⁾를 쓰기도 한다.⁵⁸⁾ 특별히 “津飛紅苑流香春送風”이라는 글귀도 쓰였는데, 이는 청대의 궁중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목관의 글귀이다.⁵⁹⁾

이 가운데 “枯城秋荒屏欄樹枯榮”과 “庭院春幽挾蒼草重茵”은 대구 형식을 취하여 짝을 이루는데, 이를 구구소한련(九九消寒聯)⁶⁰⁾ 또는 구구소한영춘련(九九消寒迎春聯)이라 하고,⁶¹⁾ 줄여서 구구영춘련(九九迎春聯)⁶²⁾이라 한다. 9획을 가진 9자를 택해 2개의 문장을 만들어 이를 상하로 쌍련(雙聯) 형식으로 배치하고, 매일 상주련(上柱聯)과 하주련(下柱聯)을 함께 칠해 간다. 연이 완성되면 81일이 되고 봄이 오는 것이니, 일반적인 문자구구소한도를 확대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다음은 상하주련 두 구가 대구를 취하는 구구소한영춘련의 사례이다.

上柱聯	下柱聯	전거
柔柳輕盈香茗賀春臨	幽柏玲瓏濃蔭送秋殘	潘萍, 『九九消寒圖碑與民俗中的九九消寒』 ⁶³⁾
春泉垂春柳春染春美	秋院挂秋柿秋送秋香	潘萍, 『九九消寒圖碑與民俗中的九九消寒』 ⁶⁴⁾
屋后流泉幽咽洽香草	庭前垂柳珍重待春風	蕭芳麒, 『九九消寒圖的來歷』 ⁶⁵⁾
幽柏玲瓏濃蔭送秋殘	柔柳輕盈香茗賀春臨	蕭芳麒, 『九九消寒圖的來歷』 ⁶⁶⁾

56) 谷萬里, 『冬至習俗;九九消寒圖』, 『中華養生保健』, 2010년 12기, 19쪽.

57) http://big5.china.com.cn/txt/2007-11/06/content_9185674.htm

58) 이 밖에 쓰이는 문구로 “待東春風重染郊亭柳”, “枯城秋荒屏欄樹枯榮”, “庭院春幽挾蒼草重茵” 등이 있다. 특이한 것은 번자체로 썼을 경우 9획 이상이나 간자체로 쓸 경우 9획이 되는 글자가 보인다. 이를테면 欄, 樹, 榮자의 경우 10획을 넘지만 간자체 欄, 樹, 榮로 써서 9획을 이룬다. 이와 같은 양상은 21세기에 들어와 벌어진 양상으로 추정된다.

59) 李松齡, 『冬至數九話消寒』, 『北京檔案』, 2013년 11기, 7쪽.

60) 陳新, 『“九九消寒圖”探源』, 『閱讀與寫作』, 2006년 제5기, 32쪽.

61) 李松齡, 『冬至數九話消寒』, 『北京檔案』, 2013년 11기, 7쪽.

62) 潘萍, 『九九消寒圖碑與民俗中的九九消寒』, 『碑林集刊』, 2001, 208쪽.

63) cf 李松齡, 『冬至數九話消寒』, 『北京檔案』 2013년 11기, 8쪽.

중국 제일역사당안기록관은 청대의 ‘구구소한시도’를 소장하고 있는데, 모양과 형식이 일반적인 구구소한도와 비슷하다. 각 구九마다 4구句로 구성된 총 36구의 시를 배치하였고, 상고시대의 ‘삼황치세’를 시작으로 ‘대청좌금란’까지 발생된 중요한 사건들을 내용에 담았다.⁶⁷⁾

문자 구구소한도를 유희할 때에는 하루의 날씨에 따라 획수를 칠하는 색깔을 달리한다. 글자의 획수에 칠하는 색깔은 향유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하루의 날씨 상황과 관련된 특정의 색깔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맑을 때에는 홍색으로 칠하고, 흐릴 때에는 남색으로, 비가 올 때에는 녹색으로, 바람이 불 때에는 황색으로, 눈이 내리면 흰색을 칠한다. 그러므로 문자 구구소한도는 홍(紅), 남(藍), 녹(綠), 황(黃), 백(白)의 다섯 가지를 칠한 것이며, 전체적으로 채색화 효과를 낸다.⁶⁸⁾ 아마도 오방색을 통한 개별적인 변화와 전체로서의 총합적인 나날의 조화를 통하여 중춘(仲春)으로 다가가는 계절의 변화를 확실히 느끼도록 시각화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⁶⁹⁾

64) 李松齡, 『冬至數九話消寒』, 『北京檔案』, 2013년 제11기, 7쪽.

65) 蕭芳麒, 『九九消寒圖的來歷』, 『對聯(民間對聯故事)』, 2008년 제1기, 15쪽.

66) 현대에 와서는 앞서 인용한 번자체와는 달리 간자체를 쓰기도 한다. 蕭芳麒, 『九九消寒圖的來歷』, 『對聯(民間對聯故事)』, 2008년 제1기, 15쪽; 李松齡, 『冬至數九話消寒』, 『北京檔案』 2013년 11기, 8쪽.

67) 李松齡, 『漫話‘九九小寒圖’』, 『文史知識』, 1986년 제57기, 64~65쪽.

68) 색칠을 하는 방식에 대해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큰 문제는 아니다. 完顏佐賢이 쓴 『康乾遺俗軼事節物考』에서는 “맑을 때에는 紅色으로 칠하고, 흐릴 때에는 藍色으로, 비가 올 때에는 綠色으로, 바람이 불 때에는 黃色으로, 눈이 내리면 칠하지 않거나 鉛粉으로 칠한다.”고 했다. cf. 隨杰, 『冬至與九九消寒圖』, 『河北畫報』, 2008년 12기, 35~40쪽.

69) 填充每天的筆畫所用顏色根據當天的天氣決定, 晴則爲紅; 陰則爲藍; 雨則爲綠; 風則爲黃; 落雪填充。由於數九期間歷時整整八十一天並且經歷從仲冬到孟春的季節變化, 每天的天氣各不相同, 因而九九消寒圖色彩斑斕, 頗爲悅目。; 바이두(www.baidu.com)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이에 덧붙여 문자 구구소한도와 구구소한시도(九九消寒詩圖)가 결합된 형식을 볼 수 있다. 9획으로 된 9개의 글자를 크게 쓰고, 9개의 글자 주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읊은 ‘구구소한시도’를 넣었다.⁷⁰⁾ 이와 같은 방식은 문자 구구소한도를 운영하는 방식과 같은데, 다만 구구소한시도를 넣어 시적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살리는 구실을 한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문자 구구소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2) 「구구소한도」에 반영된 성격

「구구소한도」를 행하는 시기는 ‘동지’이다. 동지는 24절기의 하나이고 음력 11월을 지시하는 중기(中氣)이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11월을 가리켜 동짓달이라 하는데, 이는 24절기의 중기인 동지를 가리키는 달이름이다. 중국의 경우, 동절(冬節), 교동(交冬), 하동절(賀冬節) 등으로 불린 ‘동지’의 띠이름들은 동지가 그만큼 큰 중국의 전통명절임을 드러낸다. “동지는 설만큼 크다[冬至大如年]”거나 “살쥔 동지, 파리한 설”이라는 속담⁷¹⁾ 표현 역시 동지가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중국에서의 동지는 정월 초하루와 같이 백관들이 동지 하례를 하고, 홍전(紅箋)⁷²⁾을 갖추어 배례하는 날⁷³⁾이다. 이런 절일적 관행은 동지가 아세(亞歲)로서의 역법적 전통을 지닌 날임을 보여준다. 음양적으로 볼 때, 극음(極陰)이 절정을 이루고 이에 대응하여 소양(少陽)이 생기(生氣)하는 날이다. 이때를 맞이하여 행한 민속이 바로 「구구소한도」 민속이다.

「구구소한도」를 유희한 까닭은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70) 李松齡, 「漫話 ‘九九小寒圖」, 『文史知識』, 1986년 제57기, 65쪽.

71) 『清嘉錄』; 隨杰, 「冬至與九九消寒圖」, 『河北畫報』, 2008년 제12기, 35쪽.

72) 홍전(紅箋)은 시 따위를 쓰는 붉은 종이를 말하는데, 명함이나 초대장 등에도 쓴다.

73) 국립민속박물관, 「제경경물략」, 『중국대세시기』 II, 2006, 102쪽.

은 봄에 대한 기대와 음이 변하여 양으로 전변하는 계기적 상황을 즐기려는 유희성을 지녔다는 점이다.⁷⁴⁾ 매화 한 송이를 그려나가거나 특정 글자의 한 획을 그어나가는 것은 억지로 할 일이 아닐뿐더러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다. 자의적인 동기나 세시적인 의례성이 없다면 중도에 폐할 수 있고, 재미가 없다면 저절로 그만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끝까지 마무리함으로써 봄을 무사히 맞는 나름의 기쁨을 맛본다.

소한구구도 그리기를 배워서	學畫消寒九九圖
창을 붉게 하느라 꽤 공을 들이네.	紅窗費盡好工夫
아침마다 먹을 칠하고 매번 숫자를 헤아려	朝朝合墨番番數
꽃의 생일 ⁷⁵⁾ 이 되면 끝이 나네.	算到花朝得了無 ⁷⁶⁾

이 시는 사사ؤل(査嗣堧)이 쓴 『소한도시(消寒圖詩)』⁷⁷⁾를 『연경세시기』의 저자 부찰돈숭(富察敦崇)이 인용한 것이다. 『구구소한도』를 ‘소한구구도’라 했으나 이는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시적 운율을 살리기 위함이다. 내용을 볼 때 ‘아침마다 칠을 하여 꽃피는 때를 맞는’ 그런 기쁨을 가벼운 시흥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구구소한도』를 미리 준비하고 동지 전날에 붙이는 것은 동지를 맞는 즐거운 놀이일 수밖에 없다.

74) 이 점에 주목한 陳新은 구구소한도가 ‘도문(圖文)유희’라 언급했다. 도문은 말 그대로 그림과 문자를 가리킴이니, 구구소한도를 운용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말이 아닌가 한다. cf. 陳新, 『“九九消寒圖”探源』, 『閱讀與寫作』, 2006년 제5기, 32쪽.

75) 화조(花朝)는 꽃의 생일이다. 백화생일이라 하며, 음력 2월 12일 또는 15일 3월 초삼일이다.

76) 『연경세시기(燕京歲時記)』, 『중국대세시기』 II, 국립민속박물관, 2006, 380쪽의 번역 일부를 다듬었다.

77) 이 시는 『연경잡영(燕京雜詠)』에 실려 있다. cf. 陳新, 『“九九消寒圖”探源』, 『閱讀與寫作』, 2006년 제5기, 31쪽.

이와 더불어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이 아홉 사람을 연락하여 9일로 정하여 소한사(消寒社)를 하는 것”⁷⁸⁾도 구구소한도와 관련된 유희성을 엿보게 한다. 긴 겨울철에 사대부들이 동인(同人)과 약속하여 화로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돌아가며 손님과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는 구구소한도의 풍속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을지라도 구구소한의 유희적 파생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둘째, 『구구소한도』는 봄에 대한 희망과 무사 월동을 기원하는 동짓날의 주술적 조신성(操身性)이 반영된 민속 표현물이다. 이를테면 양기를 돋우고 음기를 억누르며[扶陽抑陰], 천도에 순응하고 민생을 기르는[順應天道 頤養民生]⁷⁹⁾ 의도이다. 특히 동지는 아세이기 때문에 벽사진경(辟邪進慶)과 소재강복(消災降福)을 추구하는 신년의례와 같은 주술 행위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동짓날에 행하는 『구구소한도』의 운용은 유희성에서 그치지 않는다. 가까이는 한해를 맞으려는 당일의 주술성이 담겨 있고, 길게는 나날의 날씨를 정성스럽게 표기해야 하는 기간이 81일 걸린다는 점에서 미래의 희망을 갈망하는 장기적인 주술 행위이다. 특히 동지부터 99일까지의 일정 기간을 하루같이 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귀찮은 일일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한다. 그럴 때 무사히 월동을 할 수 있고, 양기가 포만왕성(飽滿旺盛)한 봄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구구소한도』의 운용은 지속적인 주술 행위로 보아도 무방하다.

『구구소한도』를 다 채운 다음에 일어나는 계기적 행위도 점복 행위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대개 81을 채운 후에는 그동안 표기했던 ‘맑은 날과 비온 날의 날씨’를 계산하여 다음해의 날씨를 점치기도 했다. 일종의 날씨

78) 李松齡, 『冬至數九話消寒』, 『北京檔案』, 2013년 제11기, 10쪽.

79) 潘萍, 『九九消寒圖碑與民俗中的九九消寒』, 『碑林集刊』, 2001, 208쪽.

점인데, 스스로 그려 넣은 매화를 보고 점을 친다는 점에서 ‘매화점(梅花占)’이라 할 수 있다. 중국 기록에 의하면, 원나라 한시 가운데 매화점이라는 말이 『구구소한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때 『구구소한도』라는 용어가 쓰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구구소한도』의 주요 소재가 ‘매화’이고, 81일 후에 이를 보고 점을 친다는 점에서 상통하는 바가 크다.

셋째, 『구구소한도』는 81일 간의 날씨를 기록한 일종의 ‘통계’라는 점에서 자연과 인사를 연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의지를 반영한 유사과학적 민속이다. 특히 겨울의 기후가 봄의 기후를 좌우하고, 그것은 만물의 생육성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민간의 선형적인 경험칙이 만든 민속지식이다. 비가 오고 눈이 내리는 나날의 날씨가 모인 전체로서의 81일 간의 기록 결과는 실제로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 이를 보고 ‘점을 친다.’ 했으나 그것은 표면적인 행위일 뿐이고, ‘데이터를 통한 해석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삶의 선형적 지혜를 담고 있다.

또 19의 1일부터 9일까지의 날씨를 보고, 29, 39, …, 99의 날씨를 예단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산서 지방에서는 19에서의 특정한 날의 날씨가 29부터 99까지의 기후 전체를 좌우한다고 본다. 만약 일구의 제2일 날씨가 춥다면 이구의 9일 전부가 춥고, 일구의 제4일이 따뜻하다면 사구의 9일 전체가 따뜻하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의 오랜 경험에서 창출된 인식물인데, 일구의 9일 날씨가 전체를 좌우한다는 관점을 담고 있다.⁸⁰⁾

좀 더 시간의 범위를 넓혀서 볼 때, 그해에 풍설(風雪)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듬해 수확의 풍흉을 결정한다고 본다. 민간의 경험에서 볼 때, 그해가 크게 춥지 않다면 이듬해에는 황충(蝗蟲)이 많이 발생하여 곡물이 잘 자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수년 간 작성된 구구소한도는

80) 董峙, 『九九消寒圖 反映出的 統計思想』, 『統計』, 1983년 제1기, 25쪽.

일종의 기후표이고, 이는 풍설의 많고 적음을 따져 가뭄의 크기를 예측하는 데 쓰이는 근거 자료가 된다. 이를테면 특정 기간의 물후(物候)와 기상을 통해 다가올 특정시기를 예측한 민속이다.

실제로 가뭄 예측을 통해 곡식의 가격을 예상하는 데에 활용되었던 것 같다. 이런 인식은 “5년에 한 번 소한(小旱)이 들고, 10년에 한 번 대한(大旱)이 든다.”는 속언서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이 있을 경우 곡물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⁸¹⁾

이에 대한 실제 기록은 청대의 양렴(讓廉)이 엮은 『경도풍속지(京都風俗志)』에서 찾을 수 있다. “동짓날에는 …(중략)… 맑고 흐림의 날씨상황을 기록해야 하고, 이것을 통하여 다음 해가 풍년인가 흉년인가 짐작할 수 있다.”고 기록하였다.⁸²⁾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구구소한도는 기본 텍스트(text)를 밑바탕에 두고 나날의 날씨인 컨텍스트(context)를 반영하여 시령(時令) 계산방식으로 완성해 가는 총체이다. 그리고 민간의 총체에 대한 해석은 경험칙이 반영된 민속지식(folk-Knowledge)이고, 나름의 과학적 근거를 담보하고 있는 민속통계학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민속기계(民俗機制)인 셈이다. 이런 시각을 반영하듯 구구소한도가 지난 통계학적 가치를 주목한 글이 위취현(衛聚賢)의 『역사통계학』(1934)이다.⁸³⁾ 비록 논의가 치밀하게 전개되지는 않았지만 청 말엽의 산서성 만천(萬泉) 일대에 유행하고 있는 구구소한도를 대상으로 통계학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구구소한도의 격식과 용법, 작용 등은 다른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여러 사례로 보듯 구구소한도 민속은 자연과 인간의 갈등 관계에서 앞날을 미리 예견하고

81) 董峙, 「九九消寒圖 反映出的 統計思想」, 『統計』, 1983년 제1기, 25쪽.

82) 李松齡, 「冬至數九話消寒」, 『北京檔案』, 2013년 11기, 9쪽.

83) 董峙, 「九九消寒圖 反映出的 統計思想」, 『統計』, 商務印書館, 1983년 제1기, 25쪽.

대응논리를 선점함으로써 자연 재해를 극복하려는 민간의 노력이 반영된 과학 이전의 과학적 사고를 담보하고 있는 유사과학적인 민속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구구소한도」는 누구에 의해 운용되었을까 하는 행위 주체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놀이의 성격상 문자를 아는 식자층과 궁 중에서 구구소한도를 운용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자 해독 능력과는 무관하게 뜻만 있다면 놀이 운용이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일반인도 쉽게 운용할 수 있다. 그만큼 상용화의 보편성이 있었다는 뜻이다. 게다가 상업적으로 구구소한도를 인쇄해서 판매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수요에 부응하려는 것이고, 거꾸로 식자층이 아니어도 구구소한도를 사다가 붙일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이 점에서 “벽 위에 붙이고 날마다 단장할 때면 연지(胭脂)를 찍어 매화 한 송이에 찍으니”라는 『무오연행록』의 기록⁸⁴⁾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당시에 여자들은 화장하면서 매화를 그렸다는 점이다. 중국 문헌인 양윤부(楊允孚)의 「난경잡영백수(灤京雜詠百首)」에서는 “동짓날로부터 매화를 그린 종이를 창문에 붙인다. 한 미인이 화장하고 있다. 화장하면서 쓰는 연지로 한 바퀴를 그린다. 81일 후에 다 그리면 매화가 살구꽃으로 변한다. 그때부터 날씨가 따뜻해진다.”는 명대의 풍속을 기술하고 있다.⁸⁵⁾ 이 외의 자료에서도 ‘여인들이 화장대 옆에 걸어두고 날마다 연지로 꽃송이를 칠했다’는 것⁸⁶⁾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구구소한도는 여성의 아취가 담긴 유희이다.

연지는 여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장도구인데, 시문학적인 은유

84) 서유문(徐有聞, 1762~1822), 『무오연행록』 제6권, 기미년(1799, 정조 23) 2월 13일.

85) 李松齡, 『冬至數九話消寒』, 『北京檔案』, 2013년 11기, 7쪽.

86) “女子一般將其挂在梳妝台邊, 每天涂胭脂時抹上一瓣, 待八十一天過去, 冬去春來, 素梅也變成了杏梅。如此韻致的婦女曉妝染梅。” cf. 神州民俗 編輯部, 『冬至習俗: 九九消寒圖』, 『神州民俗』, 2014년 제21기, 19쪽.

로 쓰였다기보다 매화소한도를 운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이는 분단장을 하던 여인도 연지를 붓 삼아 그릴 수 있는 것이 「구구소한도」라는 점을 일러준다. 글자의 획수에 따라 빈칸을 하나씩 채워나가면 되고 매화를 그린 것이라면 한 송이나 한 잎씩 그려나가면 되는 일이다. 식자층의 ‘붓’이 없어도, 문장가의 문장을 알지 못해도 연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물론 이 때에는 흰 매화가 붉은 매화로 바뀔 것이고, 문자는 하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렇다면 「구구소한도」의 주체는 지식의 유무를 떠나며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행위가 된다. 놀이의 유희성을 즐길 의도가 있고, 동지를 맞아 송구영신하려는 주술적 의지와 바람이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곧 「구구소한도」가 지닌 동지 민속의 세시성이다.

세시는 한해를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시간상에 존재하는 의례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시와 시간을 떼어놓고 논의할 수 없다. 동짓날에 행해지는 「구구소한도」의 행위가 역서를 기준하고 이에 따라 일정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반복한다는 점에서 분명 세시이다. 그러므로 동지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구구소한도」는 동지의 세시풍속이며, 전망 가능성을 담보한 전략적인 동지의례의 행위상관물(a behavioral correlative)이다.

연화(年畵) 가운데 구구소한도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마다 동지 이전에 ‘소한도를 새겨 시장에 내며, 구구가를 함께 붙였다.’⁸⁷⁾고 한다. 판매용 소한도를 제작했다는 뜻이고, 연화 풍속의 하나로써 구구소한도를 상품화하고 이것의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연화는 흔히 세화(歲畵)라 하며, 새해를 송축하고 재앙을 막기 위해 그린 그림이다.⁸⁸⁾ 주로 정초에 붙이는 벽사기복(辟邪祈福)을 전제한 중국의 세

87) 隨杰, 「冬至與九九消寒圖」, 『河北畫報』, 2008년 제12기, 38쪽.

88) 중국의 연화는 加冠進祿, 天宮賜福, 承馬而來, 神荼鬱壘 등과 같은 길상과 벽사의

시풍속이다. 이런 세화처럼 구구소한도를 동지 전에 팔고 동짓날에 이를 붙였다는 것은 동지를 새해로 인식하는 역법 체계에서 가능한 일이다. 구구소한도의 전개가 명청대(明清代)에 이루어지고, 연화가 명청대에 크게 유행한 것을 감안한다면 민속의 필요성에 따라 구구소한도를 연화 영역으로 수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림 1 명주사 고평화박물관 「구구소한도」 목판으로 인출한 구구소한도

연화와 구구소한도의 조응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연생귀자구구소한도(連生貴子九九消寒圖)」를 비롯한 「초피화구구소한도(俏皮話九九消寒圖)」, 「팔선상수구구소한도(八仙上壽九九消寒圖)」 등이다.⁸⁹⁾

소재를 주로 쓴다. 본디 세화라는 용어는 연화보다 먼저 쓰였고, 변천과정, 소재 차원, 제작과 유통방식에서 연화와는 다르다. cf. 김용권, 「세화와 연화의 차이점 연구」, 『현대미술연구소 논문집』 9권, 경희대학교 현대미술연구소, 2008, 36~50쪽.

89) 隨杰, 「冬至與九九消寒圖」, 『河北畫報』, 2008년 제12기, 38~39쪽.

이 가운데 하북 지방에서 간행한 『연생귀자구구소한도』는 도표(圓圈) 구구소한도에 해당하는데, ‘좌우로 배치한 원 안에 2명과 3명의 어린이가 서로 거꾸로 서서 연꽃을 잡고 노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 이때의 연자(蓮子)는 연꽃을 상징하며, 전체적으로 ‘잇달아 귀한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른바 다섯 아이가 열 명의 아이로 변한다는 오자십동(五子十童)의 뜻이다.⁹⁰⁾

3. 명주사 고관화박물관 소장본 「구구소한도」의 내용

본 항목에서는 명주사 고관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구구소한도」 목판⁹¹⁾의 내용을 살핀다. 목판은 다량의 인출본(印出本)을 만들기 위해 제작된다. 구구소한도를 목각하여 목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목판의 목적이 인출에 있고, 구구소한도의 용처와 수요가 그만큼 많았음을 뜻한다.

목판은 가로로 6분할하고, 상하로 2분할하여 구성하고, 해당 칸에 특정 문구와 그림을 넣은 문자 구구소한도의 양식을 취하고 있다. 상단의 난외(欄外)에는 “春夏秋冬發福生財頭 春夏秋冬發福生財二 春夏秋冬發福生財三 春夏秋冬發福生財四”를 넣었다. 상단에는 이 목판을 대표하는 “眞是活財神來到咱家”라는 9획의 글자 9자를 넣었다. 글자의 테두리만 있는 빈 글자인데, 큰 원(○) 안에 글자를 넣어 강조하였다. 문구의 뜻은 “진실로 재물의 신이 우리 집에 오신다네.”이다. 여기서 말한 활재신(活財神)은 ‘살아있는 재물의 신’이라는 뜻으로, 1823년부터 1885년까지 활동했던 휘상(徽商) 호설암(胡雪巖)을 말한다. 9글자는 매일 한 획씩 그려나

90) 隨杰, 『冬至與九九消寒圖』, 『河北畫報』, 2008년 제12기, 33쪽.

91) 55.5×53×3cm. 양면의 목판을 印出하여 합치면 한 장(120×70cm)의 구구소한도가 완성되는 형태이다.

가는 문자 구구소한도의 전형적인 방식임을 보여준다. 9글자를 중심으로 하되 글자의 앞뒤에 7수의 구구소한시를 병기하여 배경으로 삼았다. 이른바 문자 구구소한도와 구구소한시가 결합된 형식이다.

글자 밑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 삽화 형태인데, 특정 그림과 함께 “天降細雨，馬抱雙駒，細雨滿天下 農民一齊忙，五穀豐登，天榜點壯元，天下大平，洞房會新娘，月老，招財利市來進寶，利市仙官，五路進財源，發財轉還家……” 등의 길사(吉事)와 재물에 관한 문구를 화제처럼 배치하였다. 이 주제는 한 해에 이루어지는 생활사와 관련된 것이고,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내용인 동시에 염원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다. 문자와 관련된 삽화들은 서로 구별될 수 있도록 그림 주위에 외곽선을 넣어 화면을 분할하였다. 분할 면은 일정하지 않고 그림 크기에 따라 적당하게 선을 넣어 구획하였다.

그림 부분의 중앙에는 ‘春夏秋冬’을 외곽선으로 크게 쓰되 문자 내부를 빈 공간으로 하고, 마치 그림의 중심처럼 배치하였다. 이는 구구소한가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구구소한도’라 할 수 있다.

좌우 칸에는 세로로 두 구의 문구를 넣었는데, “忍而和齊家上策”과 “勤與儉創業良謀”을 대칭으로 배치하였다. 뜻은 “참고 화합하는 것은 제가(齊家)의 상책이고, 근검은 창업의 좋은 계책이다.” 이는 구구소한도 전체의 상징성을 담은 내용으로 보인다.

맨 왼쪽 난외에는 “義和書店”을 새겼는데, 이는 이 목판본을 만든 현대적 개념의 출판사를 가리킨다. 의화화점은 화북성 무강(武強)에 있었던 유명한 출판사로, 청대 중기에 수많은 목판본을 인출하여 판매했던 상업용 출판사이다. 특히 수준 높은 연화를 생산했던 관계로 ‘무강연화(武強年畫)’로 유명하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결국 “義和書店” 4글

자를 통해 목관의 편년을 가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관의 구성을 볼 때, 이 구구소한도는 “眞是活財神來到咱家”의 한 획씩을 매일 그려나가는 방식의 문자 구구소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眞, 財, 神, 家는 10획의 글자이고, 來, 到는 8획의 글자이다. 일반적인 문자구구소한도의 규칙에서 벗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9획의 글자로 맞출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글자 획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眞(眞)은 10획의 글자이나 이체자로 바꾸고 가운데 부분을 5획의 乚로 조정하여 총 9획의 글자로 계산하였다. 財는 본디 10획의 글자인데, 貝의 삐침별(ノ)과 目의 다섯 번째 획을 함께 긋는 방식으로 1획을 줄여(貝를 6획으로 조정하여) 총 9획의 글자를 만들었다. 神자는 번체로 10획이나 이체자로 神을 써서 9획으로 맞추었고, 家자는 돼지시(豕)를 6획으로 축약하여 총 9획으로 조정했다. 來자는 人변을 口로 교체하여 9획으로 늘였고, 到는 좌측의 마늘모(厶)를 3획으로 쳐서 총 9획으로 늘였다. 결국 이 문장은 본디 글자의 획수와는 다르게 획수를 증삭(增削)하여 9획의 글자로 만든 문장이다.

1) 구구소한시의 판독과 내용

구구소한시는 구구가의 형태를 띠지만 이를 확대시키고 문학적으로 형상화시킨 시문 형식이다. 전체적으로 19부터 99까지의 순차(順次)를 따라 가되 나름의 의미를 담아 형상화했다.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39와 99가 생략되어 있다. 글자가 작고 때로는 인출 과정에서 먹이 뭉개진 부분이 있어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 네모(□)로 남긴다. 원 숫자는 논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며, 하단에 논자의 해석을 덧붙인다.

① 一九里冷風揚 劉秀光武走南陽 岑彭馬武姚期將 二十八宿鬧昆陽; 일

구에는 찬바람이 부네. 광무제 유수(劉秀)가 남양 땅으로 달려가고, 잠팽(岑彭), 마무(馬武), 요기(姚期) 등 이십팔수 장수들이 곤양(昆陽) 땅을 떠들썩하게 하였네.

19에 등장하는 내용은 광무제 유수(劉秀)와 그를 도왔던 28명의 장수에 관한 이야기이다. 광무제 유수는 후한을 창업한 초대 황제(재위 AD 25~57)이다. 자는 문숙(文叔)이고 묘호는 세조(世祖)이며, 시호는 광무(光武)이다. 전한(前漢)의 고조 유방(劉邦)의 9세손이다. 전한은 1세기 초 왕망(王莽)에게 나라를 빼앗겨 멸망하였으며, 왕망은 신(新)이라는 새 왕조를 세웠다. 신 말년에 각지에서 군웅이 거병하여 할거했을 때, 유수도 하남성 남양의 호족과 손을 잡고 봉기하였다. 각지로 전전한 끝에 하북·하남·호북에서 세력을 펼쳤으며, 하남의 곤양성교(昆陽城郊)에서 수천의 병사를 이끌고 왕망의 군대를 격파하였으며, 25년 하남의 낙양에서 즉위하여 한왕조를 재건하였다. 곤양에서 벌인 전투를 ‘곤양전투’라 하는데, 이 전투는 삼국시대의 적벽대전, 동진의 비수지전(肥水之戰)과 함께 중국 역사상 소수로 다수를 승리한 전투로 유명하다.

일구에 묘사된 내용은 바로 이런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곤양전투에서 잠팽, 마무, 요기 등과 같은 장수 28명이 용맹을 떨쳤다. 이들은 광무제 이후인 명제 때 낙양 남궁의 운대에 28장수의 초상화를 그려 봉안되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운대 28장(雲台二十八將)’이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다. 범엽(范曄, 398~445)은 『후한서(後漢書)』에서 “중흥 28장은 전생애는 28수의 별자리에 대응한 것이라고 할 생각이었던 것 같지만, 아직 해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28명의 공신 이름을 나열한 바 있다. 이 내용은 『후한서』와 『문선(文選)』에 실려 전한다.⁹²⁾

92) 『후한서(後漢書)』 권1 『광무제기(光武帝紀)』, 『문선(文選)』 제50권 史論下 『范蔚

② 二九里凍難消 老夫人一怒打肖挑 二郎擔山趕太陽 大鬧天宮孫大怪
心惱如來把他壓

이구에는 언 것이 녹기 어려워라. 노부인이 한 번 화를 내어 12지신을 두드리도다. 이랑군(二郎君)이 산을 짊어지고 태양을 쫓네. 손오공이 천궁을 떠들썩하게 하니 노한 석가여래가 그를 눌러 놓았네.

29에 등장하는 이랑신은 『봉신연의(封神演義)』에서는 ‘양전(楊戩)’으로, 『서유기』에서는 ‘이랑진군(二郎眞君)’으로 활동하는 인물이다.⁹³⁾ 특히 소설 『서유기』에서는 옥황상제의 조카로 등장하며, 손오공을 쫓아내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서유기』의 제5회(亂蟠桃大聖偷丹 反天宮諸神捉怪)에서는 손오공이 천궁을 흔들어 놓은 사건(大鬧天宮故事)이 나오며, 제6회(觀音赴會問原因 小聖施威降大聖)에서는 손오공이 이랑신에게 붙잡힌다.⁹⁴⁾ 그러나 다시 뛰쳐나와 소란을 피우자 여래가 노하여 손오공을 붙잡아 오행산(五行山) 바위틈에 가둔다.⁹⁵⁾

(③ 삼구가 없으므로 빈 칸으로 둔다.)

④ 四九里冷如水 秦瓊救駕在臨潼 楊廣太子生毒計 一心要害唐國公

사구에는 차갑기가 얼음 같도다. 진경(秦瓊)이 임당(臨潼)에서 당태조 이연을 구했으나, 양광태자(楊廣太子)가 악독한 계획을 내어, 한마음으로 당

宗後漢書二十八將傳論』.

93) 中野美代子, 김성배 옮김, 『서유기의 비밀-道와 연단술의 심벌리즘』, 모노그래프, 2014, 242쪽.

94) 『서유기』 제5회, 亂蟠桃大聖偷丹 反天宮諸神捉怪, 제6회 觀音赴會問原因 小聖施威降大聖.

95) 中野美代子, 김성배 옮김, 『서유기의 비밀-道와 연단술의 심벌리즘』, 모노그래프, 2014, 30쪽.

국공(唐國公)을 해치려 하였다네.

49에 등장하는 진경(秦瓊)은 제주(齊州) 역성(曆城) 사람으로 자는 숙보(叔寶)이다. 수말당초의 명장으로 처음에 수나라 장수를 지내다가 나중에 당나라에 투항했다. 이세민을 따라 전투에서 적장의 수급을 베는 등의 공로를 세웠다. 당국공(唐國公)은 당태조 이연을 가리킨다. 진경은 24명의 개국공신 중의 한 명이며, 도가에서는 율지경덕(尉遲敬德)과 함께 잡귀를 쫓는 신으로 숭신된다. “임당에서 당태조를 구한” 진경의 고사는 후대의 역사연회소설에 주요 소재로 쓰였다.⁹⁶⁾

⑤ 五九里十二月里 番邦公主趕三關 平貴一心要前坡王寶釧

오구는 12월인데, 변방의 공주는 삼관으로 쫓아왔고, 설평귀는 온 마음으로 무가과(武家坡) 앞의 왕보천(王寶釧)에게 가려 하네.

설평귀와 왕보천은 한요고사(寒窯故事)에 등장하는 전설상의 남녀 주인공들이다. 왕보천은 당대 승상의 딸로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민 남성인 설평귀와 결혼을 한다. 그런데 얼마 뒤에 설평귀는 변방의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고, 왕보천은 홀로 18년을 기다리다가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서량국의 왕이 된 설평귀를 만나 왕후가 된다는 내용이다. 이들의 사랑과 기원은 경극의 주요 소재로 쓰여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⁹⁷⁾

⑥ 六月里見春來 蒙正出門去趕齋 君子無時且忍奈 金榜題名壯元來

69에는 봄이 오는 것을 보네. 여몽정이 나가서 절밥을 얻어먹고 군자가

96) 역사연회소설인 『설당연의전전說唐演義全傳』 4회와 66회에도 기술되는 사건으로, 임당에서 진경이 당태조를 구한 일을 말한다.

97) 경극 『홍중렬마紅鬃烈馬』 「간삼관趕三關」, 「무가과武家坡」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지속적으로 구차하게 인내하더니,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돌아왔네.

여몽정(呂蒙正)은 하남 낙양 사람으로 자는 성공(聖功)이다. 일찍이 용문사에서 공부를 하고 태평흥국(太平興國) 2년(977)에 장원급제하여 제상까지 올랐다. 중망이 있고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하며,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출사하기 전에 용문사라는 절에서 어렵게 공부하고 마침내 장원급제한다.⁹⁸⁾ 육구에서 기술된 ‘절밥을 얻어먹고’라는 표현은 바로 이 일을 가리킨다.

⑦ 七九里六十三 路上行人把衣單 回家良子苟几百 合家一見都喜歡

칠구 육십삼에 노상의 행인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착한 사람이 진실로 몇 백인가? 온 집안사람을 만나니 모두들 기뻐하네.

79에 나오는 “노상의 행인들이 소매를 걷어붙인다(路上行人把衣單).”는 표현은 강소, 절강, 운남, 사천 등 남쪽지방에서 구전하는 하구구가에 서 등장하는 구절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특히 강소 단양지역의 구구가와 동일하다. 강소 상주 등 오랏 문화지역에서는 “행인이 홰옷을 입는다(行人着衣單).”고 표현하고, 절강 일대에서는 “이리저리 덧대 기운 옷을 양어깨에 걸치네(布衲兩肩攤).”라고 노래한다.⁹⁹⁾ 이와 같은 노랫말은 북경, 내몽골 지역에서 구전되는 ‘동구구가’ 계열의 “칠구에는 강이 풀린다(七九河開).”는 표현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판본을 엄밀히 비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이로 보아 이 구구는 남쪽 지방의 기후를 담은

98) 趕齋(趕齋); 佛寺布齋時前去就食 절밥을 얻어먹다. cf. 元 王實甫『破窯記』第二摺; “我去寺中趕齋去, 得一分齋飯, 與我渾家食用” 川劇『評雪辨蹤』首場; “心寧志堅, 配夫 蒙正 一秀才, 破衣難遮蓋, 空負腹中才, 寺中去趕齋。”

99) 李松齡, 『冬至數九話消寒』, 『北京檔案』, 2013년 11기, 6쪽.

‘하구구가’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추위가 물러가고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소매를 걷어 붙인다는 남방 기후의 변화와 일상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⑧ 八九河開雁不愁 春地忙追透 雨下一場 衆民一齊種田地 今年到比去年 強收麥子到了場 每年兩本有餘補 大秋高補打萬分 五穀豐登喜非常
 팔구에는 강물이 풀리고 기러기가 근심하지 않게 되었는데, 봄 땅에서 바쁘게들 따르고, 비가 한 바탕 내리자 농부들이 일제히 밭에 씨를 뿌리네. 금년은 작년에 비교하여 일찌감치 보리가 수확될 것이네. 해마다 여유가 있을 것이며, 높은 하늘에 대추를 타작하고, 만방에 오곡에 풍년이 드니 그 기쁨이 각별하네.

“강물이 풀리고 기러기가 근심하지 않네(河開雁不愁).”라는 팔구의 첫머리는 보통 ‘기러기가 날아온다(雁來)’로 묘사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강물이 풀린다(河開)’는 구절은 보통 칠구에서 묘사되는 관용구이다. 그러므로 이 판본의 팔구는 여타 구구가의 ‘79’와 ‘89’가 합쳐진 꼴이다. 이와 같은 혼용은 이미 칠구에서 시작되었다. 결국 이 판본은 동구구가와 하구구가가 혼용된 양상을 보이고, 이때는 이미 양자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에서 구구소한도의 관습적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전체적인 내용과 양상을 볼 때, 39(③)와 99(⑨)가 누락되어 있고, 몇 부분이 칠언절구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틀을 벗어나 글자 수가 제각각임을 알 수 있다. 구구소한시의 정형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우 불안정한 구조이나 내용면에서 볼 때는 여전히 구구소한시의 전통적인 양상을 유지하고 있다.

2) 삽화의 구성과 내용

하단에 배치된 그림은 총 18종류이다. 그림과 그림 사이에 구획선을 두어 개별 그림을 구별하려 하였고, 그림마다 화제(畫題)를 달거나 관련 문구를 배치하여 그림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배려하였다. 그러나 몇몇 글자는 판독이 불가능하여 □로 처리하고 차후를 기다린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의 순서로 읽어가며 원 숫자를 붙인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그림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덧붙인다.

① 天降細雨 하늘이 가랑비를 내리다¹⁰⁰⁾

; 하늘에서 선관 또는 우신(雨神)이 가랑비를 뿌리자 농부들이 쟁이를 들고 들로 바빠 가는 모습이다. 춘경(春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② 馬抱雙駒 말이 망아지 두 마리를 품고 있다.

; 여자 2명과 남성이 소쿠리를 들고 있고, 두 명의 여성이 바라보고 있다. 두 마리의 망아지가 어미의 젖을 빨고 있다. 말은 보통 한 마리의 망아지를 낳는데, 한 배에 두 마리의 망아지를 낳았다는 것은 가축이 무탈하게 자라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실제로 말이 망아지 두 마리를 낳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왕조실록』¹⁰¹⁾에 기록될 정도이다.

③ 愛秀□□□ □□□ ; □□□을 사랑하다.

; 한 남성이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남성이 바라보고 있다.

100) 한자는 그림에 나오는 화제나 문구이며, 오른쪽의 한글은 논자가 그대로 해석한 것이다. 다음 행의 쌍반점(;) 다음에 이어지는 글은 논자가 해석한 내용이다.

101) 『조선왕조실록』 정종 1년(1399) 7월 15일 기사; 경상도 계림 이고의 종이 한 번에 아들 셋을 낳고, 말이 망아지 두 마리를 낳다. cf. 한국고전종합DB 검색 자료

④ (화제 없음) ; 노인이 보릿대를 들고 있고, 아이는冬瓜(冬瓜) 또는 호박 같은 길쭉한 수확물을(이삭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있다. 보릿대에는 두 개의 이삭이 달려 있다. 보릿대 하나에 이삭 하나가 달려야 정상인데, 두 개의 이삭을 묘사한 것은 보리농사의 풍년을 소망하는 일종의 선언이다. 이 보리는 가을에 씨를 뿌려 이듬해 초여름에 거두는 가을보리[秋麥]로 보인다.

⑤ 細雨滿天下 農民一齊忙 가랑비가 천하에 가득하니 농민들이 모두 들 바쁘네.

; 두 명의 농부가 소를 부려 파종을 하고 있다. 소가 끌고 있는 쟁기는 중국의 북방지역에서 종자를 뿌릴 때 쓰는 파종쟁기이고, 한자어로 耩(루, lóu)라 부른다.

⑥ 英雄天下 曉□□□壯元

⑦ 五谷豐登 오곡이 풍년 들다.

⑧ 天榜點壯元 卽 하늘이 장원을 점지하다.

; 두 어린이가 ‘壯元’과 ‘及第’라 쓴 깃발을 들고 급제한 사람을 앞서고 있다.

⑨ 天下太平 천하가 대평하다.

⑩ 洞房會新娘 신방¹⁰²에서 신부를 만나다.

; 곱게 차린 신부가 신방 앞에서 다소곳이 의자에 앉아 있고, 신랑은 이제 막 신부를 찾아 온 듯 뒤에 서 있다.

⑪ 月老 월로

; 월로는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전설상의 노인이다. 월하노인(月下老人)이라 하며, 흔히 중매쟁이를 가리킨다. 중국 당나라의 위고(韋臯)가 달밤에 어떤 노인을 만나 장래의 아내에 대한 예언을 들었다는 데서 유래

102) 동방은 화촉동방(華燭洞房)을 가리킨다.

한다.¹⁰³⁾ 여기에 월로가 등장하는 것은 ‘동방회신낭’한 사건의 주동자가 곧 월로임을 뜻한다.

⑫ 春夏秋冬 봄여름가을겨울

; ‘춘하추동’을 화면의 중앙에 크게 쓰고¹⁰⁴⁾ ‘夏’ 밑에 물소를 과장하여 배치하였다. 그림은 독자적인 화면을 차지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장원급제한 사람의 앞과 ‘喜氣臨門’ 뒤에 놓음으로써 하나의 서사적 행렬을 이루고 있다. 물소 위에 어린이가 타고 있고, 한 남성이 물소의 고삐를 잡아 끌고 있다. 과거급제한 사람을 위한 유가(遊街) 행렬을 그린 것 같으나 일종의 춘우도(春牛圖)를 연상시키는 그림이다.

⑬ 喜氣臨門 기쁜 기운이 문에 이른다.

; 과거급제와 같은 기쁜 소식이 전해온 것을 가리키는 듯하다.

⑭ 郎才女貌世無雙 二人配就美駕承子 신랑의 재주와 여자의 미모가 뛰어나 견줄 만한 대상이 없다. 두 사람이 배필이 되어 아름다운 가마로 나아가 자식을 낳는다.

; 아름다운 남녀가 결연을 맺고 이를 통해 자식을 낳는다는 뜻의 그림이다.

⑮ 招財利市來進寶 재물신인 이시선관이 보물을 가져다 주다

; ‘利市仙官’¹⁰⁵⁾이란 문구를 들고 있는 사람의 옆에 있는 선관이 북로의 재물을 담당하는 북로재신이다.

⑯ 利市仙官 이시선관

; 민간에서 받드는 오로재신(五路財神)의 하나인 북로재신(北路財神)

103) 李復言, 『속유괴록(續幽怪錄)』.

104) 春夏秋冬을 상하우좌의 순으로 썼으며, 春은 초서체로 썼다.

105) 이시선관(利市仙官)은 북로(北路)의 재신(財神)이다. 길상신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연화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다. 이시(利市)는 장사하여 얻는 이익, 길함과 이로움, 경사스러운 날에 주는 세뱃돈을 가리키기도 한다.

을 가리킨다. 오로(五路)는 동서남북과 중앙 다섯 곳을 가리키며, 방향에 따라 재물신의 이름이 각각 다르다. 상인들은 재신 가운데 이시선관을 적극 숭신하는데, 새해에 이시선관의 도상을 문 위에 붙이고 초재동자를 배치하며, “招財童子至 利市仙官來”라는 대련을 써 붙인다.

⑰ 五路進財源 오로재신五路財神은 재물이 오는 근원이다.

; 한 사람은 말을 타고, 한 사람은 외바퀴 수레를 밀고 있는 그림이다.

⑱ 發財轉還家 재복이 터져 집으로 돌아오다

; 나귀를 끌고 오는 사람을 문 앞에서 두 사람이 맞이하는 그림이다. 원행(遠行)을 나갔다가 무사 귀가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3) 목판본의 성격

이 목판은 구구소한도를 대량으로 인출하기 위해 만든 판본이다. 동지 전에 인출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새긴 것이다. 이를테면 연화의 하나로 구구소한도가 다량으로 소비되었다는 뜻이다. 이것은 곧 구구소한도를 매개로 한 동지 민속으로서의 세시관행을 살필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이 구구소한도는 한 면의 목판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장의 소한도를 목판의 앞뒤에 나눠 새기되 정확히 ½씩 새기지 않고 가운데 부분이 중첩되도록 했다. 목판의 앞뒤를 인출(印出)하여 두 장의 그림을 이어 붙이는 방식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앞뒤를 인출하여 이어붙일 때 겹치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결국 이어붙일 때 겹치는 부분을 잘라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뜻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기술적인 이유가 따로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소장 구구소한도는 기본적으로 “眞是活財神來到咱家”를 핵심으로 하는 문자 소한도이다. 비록 글자의 획수에서 모자

라거나 넘치는 경우가 있지만 9획으로 한정하기 위해 획수의 일부를 증삭(增削)하였다. 9자를 활용하여 기존의 문구와는 다른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 모로 어려운 일이다. 비록 9글자를 조합하여 “진실로 재물신이 우리집에 오신다네.”와 같은 의미론적인 새로운 뜻을 찾았다 해도 이를 9획의 글자로 한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글자 획수의 가감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구구소한시를 구구소한도의 배경으로 삼았다. 일반적인 구구소한시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시의 내용은 중국의 여러 고사들을 차용하여 열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명주사 고관화박물관 소장 구구소한도의 판본은 구구소한시와 구구소한도를 결합한 형태로 봐도 무방하다.

명주사 소장 문자 소한도는 글자 밑에 배열된 그림에 의해 내용이 배가 되는 양식이다. 활재신(活財神)이 ‘우리집’에 온다 해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한 활재신은 ‘살아있는 재물의 신’이라는 뜻으로, 1823년부터 1885년까지 활동했던 휘상(徽商) 호설암(胡雪巖)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인물을 구체적으로 알지 않는 한 더욱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추상성을 보강하여 구체화하고, 전하고자 하는 뜻을 보전하는 것이 바로 ‘그림’들이다.

그림의 내용은 인간이 가져야 하는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이고, 또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들이다. 이를 문자로 쓴다는 것은 보편적인 이해를 얻기가 어렵고, 시각적인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화한 구체적인 도상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문자 밑에 그려진 그림들이다.

천강세우(天降細雨), 오곡풍등(五穀豐登), 천하대평(天下大平), 동방회신낭(洞房會新娘)과 같은 화제(畫題)를 가진 그림은 인간의 욕망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요건들이다. 농사에 필요한 비가 곧바로 내려야[天降細雨] 오곡이 풍년 들고[五穀豐登], 월하노인의 중매가 있어야 동방에서 신

부를 만날 수 있고[洞房會新娘], 그래야만 자식을 낳는다[二人配就美駕承子] 법이다. 또 오르는 재물의 근원이니[五路進財源], 재물신의 도움으로 마침내 재복이 터져 집으로 올 수 있다[發財轉還家]. 이것은 현실문제를 극복하려는 욕망인 동시에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전망적인 선언이다. 이런 점에서 이 그림들은 길상화이고 연화이다.

이처럼 그림을 통하여 그림의 내용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으니, 문자보다 더 문자적인 그림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자 위주의 도판은 회화적인 측면에서 격이 낮다. 문자가 있고 이를 보강하는 회화가 배치될 때 더욱 더 회화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점에서 문자 소한도에 등장하는 그림은 “眞是活財神來到咱家”의 대의를 보강하는 시각적인 문자이고 그림 문자이다.

4. 마무리

태양력에 기반한 동지로부터 9일을 단위로 하여 9번 반복되어 봄이 온다는 구구소한도는 시간을 9일 단위로 셈하는 북방의 민속에서 비롯되었다. 이른바 수리를 기반한 수구(數九) 풍속인데, 19에서 시작하여 99로 마무리된다. 이를 반영한 노래가 구구가(九九歌), 구구소한가(九九消寒歌)이다. 구구가는 민간주도로 하북, 절강, 북경 등 여러 지역에서 당송 이전에 이미 유행되었고,¹⁰⁶⁾ 지역에 따라 생태환경과 기후에 따라 노랫말의 내용이 바뀐다. 구구가는 동지를 기점으로 한 동구구가(冬九九歌)와 하지를 기점으로 하는 하구구가(夏九九歌)로 대별되나, 보통 ‘동구구가’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구구가는 구조와 내용 면에서 북방 유목민의 수

106) 隨杰, 『冬至與九九消寒圖』, 『河北畫報』, 2008년 제12기, 35쪽.

리 체계와 기상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방민속에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⁰⁷⁾

구구가는 명청대를 거치면서 수구(數九) 풍속을 기본으로 하면서 화구(畵九)와 사구(寫九) 풍속으로 발전하여 구구소한도(九九消寒圖)를 낳는다. 구구소한도는 화구 방식의 매화 구구소한도와 도표 구구소한도 및 사구 방식의 문자 구구소한도로 나뉜다. 이와는 달리 구구관념을 근거로 하여 구구소한구(九九消寒句), 구구소한격(九九消寒格), 구구소한련(九九消寒聯), 구구소한가(九九消寒歌), 구구소한시 등 다양한 시문학적인 형태로 확장한다.¹⁰⁸⁾

구구소한도는 이에서 그치지 않고 도판의 형식을 임의로 변화시켜 다채로운 양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를테면 표주박 모양의 도판을 채워 나가는 호로(葫蘆) 소한도와 태극무늬를 배열한 어형(魚形) 소한도를 비롯하여 증기(蒸氣) 소한도, 사희인(四喜人) 소한도, 천문(泉文) 소한도, 와와(娃娃) 소한도 등이 있다.¹⁰⁹⁾ 이들은 기존의 운용방식을 그대로 따오되 도판의 형식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연화(年畵)라는 민간의 수요에 부응한 것이다.

구구소한도는 절기(節氣)와 역법(曆法), 지리와 사물에 대한 정신감정

107) 구구소한도를 일년 주기를 반영한 歲와 1년 단위의 계절적 분절단락으로서의 時가 반영된 ‘歲時’로 볼 때, 다른 세시와 동떨어져 있다. 동지를 기점으로 하여 9일을 분절 단위로 삼고, 이것이 9번 반복된다는 시간관념은 24절기와도 무관하고, 삼짱날, 단오, 칠석, 중구 등 음양 기준에 의한 重日名節의 세시 단위와도 연관되지 않는다.

108) 그러므로 數九를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는 문화양식은 潘萍의 주장대로 ①구구소한도, ②九九消寒句, ③九九消寒聯, ④九九消寒格, ⑤九九消寒歌, ⑥九九消寒詩로 갈래를 설정할 수 있다. 潘萍, 『九九消寒圖碑與民俗中的九九消寒』, 『碑林集刊』, 2001, 209쪽.

109) 李露露, 『中國節-圖說民間傳統節日』, 福建人民出版社, 2005, 197쪽; 神州民俗編輯部, 『冬至習俗: 九九消寒圖』, 『神州民俗』, 2014년 제21기, 19쪽.

(精神情感)을 융합한 지식체계가 담겨 있다. 이른바 추위와 시간을 시각화하려는 민속지식(folk-knowledge)의 시각적 문화매체이다. 구구소한도의 토대는 기본적으로 시간학의 역일(曆日) 관점에서 수행된 시간풍속이자 세시민속이고, 자연의 물후와 기상을 담아내고 자한 기상민속이다.

구구소한도는 비록 호사적인 취미와 유희성에서 출발했지만 동지를 기점으로 한 세시적인 주술성과 실제의 경험칙과 해석을 반영한 기후 예측 및 이와 관련된 점복 행위로 연결된다. 이를 위해서 판화를 제작하고 다량의 인출본을 만들어 냈다. 구구소한도를 상업적으로 매매했다는 것은 동지민속으로서의 연화적(年畫的) 성격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구구소한도는 궁중에서 민간까지 두루 향유한 민속으로 전승되었다. 그리고 여러 양식의 문학적 형상화를 시도하고 발전하여 ‘민속문학’적 가치를 구현하기도 했다.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의 구구소한도 목판을 주목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와 더불어 역일과 기상 측면의 복합적 민속지식을 구현하고 있는 ‘화신풍(花信風)’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차후로 과제로 남긴다. 화신풍(花信風)은 『임원경제지』 『위선지』에서 소개되어 있고, 중국의 『형초세시기』에서는 이십사화신풍(二十四花信風), 이십사번풍(二十四番風)으로 소개되어 있다.¹¹⁰⁾ 화신풍은 소한(小寒)부터 곡우까지의 기간에 닷새마다 꽃바람이 불면 그때마다 특정의 꽃이 피고, 모두 24번의 꽃바람이 불면 마침내 봄이 온다는 개념이다. 태양력에 기반한 특정 시점으로부터 일정 방식 수리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은 꽃을 피우는 시기에 관련된 것이나 궁극적으로 풍우 점후의 한 가지로 설명되고 있어 태양력의 전통 역서라는 관점에서 산출된 동일한 문화유산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10) 서유구 저, 김일권 역, 『임원경제지 위선지 역주』 2, 소와당, 2011, 530쪽.

참고문헌

- 김정희, 『완당전집』 제5권, 서독(書牘)
- 서유구, 『임원경제지』 『이운지(怡雲志)』 권8, ‘節辰賞樂’조
- 서유문, 『무오연행록』(寫年 미상) 제6권, 기미년(1799, 정조 23) 2월 13일.
- 신위, 『警修堂全藁冊』 11, 花徑勝墨八, 丙集 四絶句
- 이황, 『退溪先生文集攷證』 卷之三, 제5권시, 阿灰花韻(註)
- 『조선왕조실록』 정종 1년(1399) 7월 15일 기사
- 李復言, 『속유괴록續幽怪錄』.
- 국립민속박물관, 『제경경물략』, 『중국대세시기Ⅱ』, 2006, 430쪽.
- _____, 『연경세시기』, 『중국대세시기Ⅱ』, 2006, 430쪽.
- _____, 『제경세시기승(帝京歲時記勝)』, 『중국대세시기』 Ⅱ, 국립민속박물관, 2006, 430쪽.
- 于敏中·英廉 등撰, 『欽定日下舊聞考』 清 卷一百四十八 『風俗』條.
- 『후한서(後漢書)』 권1 『광무제기光武帝紀』.
- 『문선文選』 제50권 史論下 『范蔚宗後漢書二十八將傳論』.
- 『서유기』
- 국립민속박물관·명주사 고판화박물관, 『인쇄문화의 꽃, 고판화』, 2015, 1~111쪽.
- 김용권, 『세화와 연화의 차이점 연구』, 『현대미술연구소 논문집』 9권, 경희대학교 현대미술연구소, 2008, 34~56쪽.
- _____, 『조선시대 세화의 시원 연구』, 『동양예술』 12호, 한국동양예술학회, 2007, 93~157쪽.
- 서유구 저, 김일권 역, 『임원경제지 위선지 역주』 2, 소와당, 2011, 1~631쪽.
- 박세욱, 『돈황본 詠九九詩와 구구소한도 연구』, 『중국어문학』 제43호, 영남중국어 문학회, 2004, 87~154쪽.
- 우실하, 『구구가, 구구소한도의 기원과 ‘3수 분화의 세계관’』, 『동양사회사상』 제13집, 2006, 347~379쪽.
- 이상희, 『매화』, 넥서스Books, 2002, 1~544쪽.
- 장장식, 『아홉을 아홉 번을 넘어야 하는 몽골의 겨울』, 『몽골민속기행』, 자우출판, 2002, 1~364쪽.

- 谷萬里, 「冬至習俗:九九消寒圖」, 『中華養生保健』, 2010년 12期, 52쪽.
- 戴鳳春, 「數九與九九消寒圖」, 『海內與海外』, 2006년 12기, 60~61쪽.
- 董峙, 「九九消寒圖 反映出的 統計思想」, 『統計』, 1983년 제1기, 25쪽.
- 潘萍, 「九九消寒圖碑與民俗中的九九消寒」, 『碑林集刊』, 2001, 207~210쪽.
- 傅連仲, 「九九消寒圖」, 『紫禁城』, 1982년 제5기, 31~33쪽.
- 蕭芳麒, 「九九消寒圖的來歷」, 『對聯(民間對聯故事)』, 2008년 제1기, 15쪽.
- 隨杰, 「冬至與九九消寒圖」, 『河北畫報』 2008년 제12기, 35~38쪽
- 神州民俗 編輯部, 「冬至習俗:九九消寒圖」, 『神州民俗』, 2014년 제21기, 18~19쪽.
- 王惕, 『中華美術民俗』, 中華人民大學出版社, 1996, 1~618쪽.
- 李露露, 『中國節-圖說民間傳統節日』, 福建人民出版, 2005, 1~255쪽.
- 李松齡, 「冬至數九話消寒」, 『北京檔案』, 2013년 11기, 6~10쪽.
- _____, 「漫話 ‘九九小寒圖」」, 『文史知識』, 1986년 제57기, 63~65쪽.
- _____, 「溥儀與九九消寒圖」, 『紫禁城』, 1987년 3期, 18~20쪽.
- _____, 「冬至數九話消寒」, 『北京檔案』, 2013년 11기, 6~10쪽.
- 陳新, 「“九九消寒圖”探源」, 『閱讀與寫作』, 2006년 제5기, 31~33쪽.
- 中野美代子, 김성배 옮김, 『서유기의 비밀-道와 연단술의 심벌리즘』, 모노그래프, 2014, 1~415쪽.
- Y , , 2000, 1~503쪽.

<http://www.epochtimes.com/b5/14/12/26/n4327438.htm>

http://big5.china.com.cn/txt/2007-11/06/content_9185674.htm

ABSTRACT

Characters and Meanings on the Painting for Cold Diminution,
Gugusohwan-do

—Based on the Collection of the Woodblock Prints Museum
in the Myungjusa Temple—

Jang, Jang-sik · Jeong, Bu-yong

The painting for cold diminution, *gugusohwan-do* originated from the folk custom of the northern Asia that represents eighty one days which nine days as a unit repeat nine times from dongji(winter solstice). People believed that spring comes after passing eighty one days. The custom called 'sugu' starts from 19 end in 99, which reflects on 'song of eighty one days, *gugu-ga*' and 'painting for cold diminution, *gugusohwan-do*'. The song was already popular among peoples in various areas before Tang(唐) and Song(宋) dynasties. In some places, the lyric of the song was modified pursuant to the climate condition and ecological environment. It has been presumed that it was passed down from the northern Asian custom in that the song reflected on the hydraulic system and climate condition of the northern nomads in its forms and contents.

The song, *gugu-ga*, based on the 'sugu' custom, had developed into the 'hwagu, drawing the number nine, and the 'sagu', copying the number nine' throughout Ming and Qing(明清) dynasties and had produced the painting, 'gugusohwan-do' later on. It can be categorized into the painting with Japanese apricot flowers, the chart pattern of painting and the number nine character style of the painting. In the other way, different types of poetry have evolved on the concept of nine times nine. Also, the form of printing has been varied with an arbitrary transforming.

The painting is a visual culture medium of folk knowledge converged with the psychiatric evaluation on solar term, calendar, geography and object. Even though it began from the extravagance, it is basically based

on dongji(winter solstice) of lunar calendar. The painting is not only for the way of counting number but also for seasonal custom reflecting the perspective of calendar and climate culture implicating nature meteorological phenomena. It has effect on both seasonal magical and extravagance, which is correspondent to climate prediction based on experience and interpretation as well as augural practice. In this sense, the painting was used and circulated widely by manufacturing painting blocks. What it was commercially circulated means that it characterized as annual painting on dongji(winter solstice) custom. It was popularized regardless of status to achieve human wishes. Therefore, it still, although partially, continues as one of seasonal customs in both royal court and commoners.

Key Words Gugu-ga, Gugusohwan-do, Gugu(nine times nine), woodblock, Dongji(winter solstice), Dongji customs

논문투고일	: 2016.04.15
심사완료일	: 2016.04.30
게재확정일	: 2016.05.08